

Special

음악이 우리를 고취시키는 과정

Interview

천상의 하모니가 전하는 위로와 위안
데뷔 20년 차 보컬 그룹 노을을 만나다

Preview

경기발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오페라 〈피기토의 결혼〉
천재가 남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

Structure

에이드리언철 & K11
세상에서 가장 무아한 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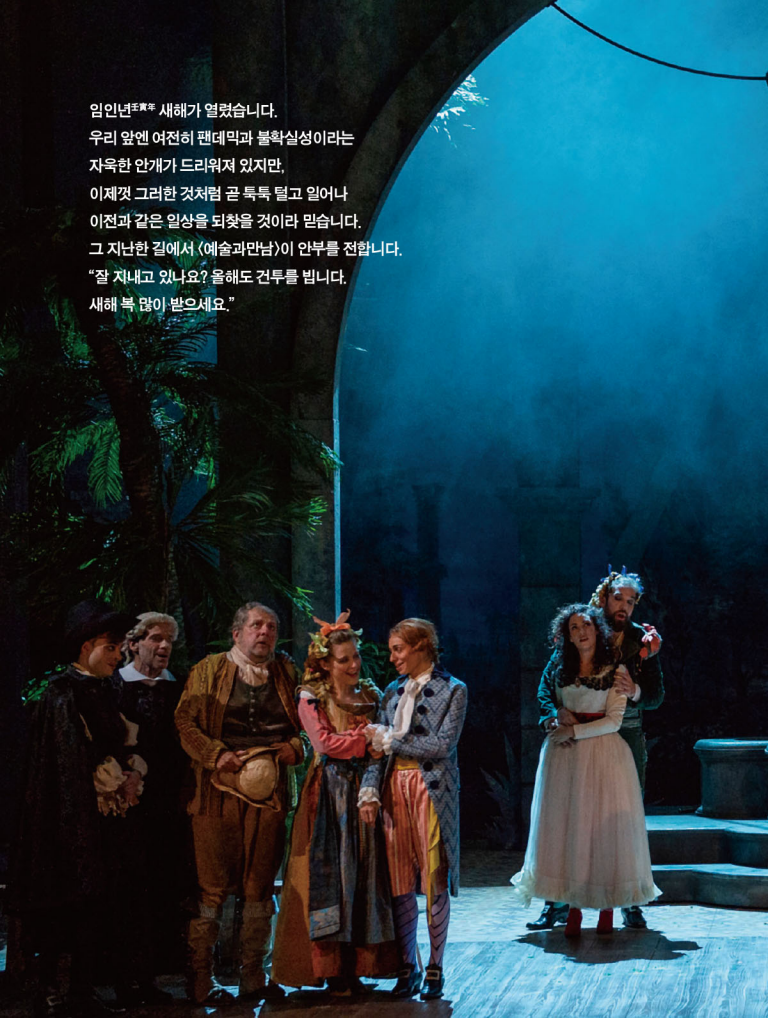


예술과 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2. Feb+Mar Vol. 154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 앞엔 여전히 팬데믹과 불확실성이라는
자옥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지만,
이제껏 그러한 것처럼 곧 특특 털고 일어나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지난한 길에서 <예술과만남>이 안부를 전합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올해도 건투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NTENT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Vol. 154



* SPECIAL

06

Column

음악의 힘: 음악이 우리를 고취시키는 과정
음악은 서사에 힘을 더하고,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완성한다.

12

Recommendation

음표로 써 내려간 이야기
음악이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가 들리는
음악이 완성한 작품들

16

Interview

위대한 순간을 연출하다
<피가로의 결혼>을 연출한
장서문과 나눈
서사와 음악
그리고 공연 이야기

* STAGE

20

Preview 1

2022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공개
검증된 감동과 환희의 무대가 올해도 펼쳐진다.

26

Preview 2

음악으로 점철된 평화의 순간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
<슈만 교향곡 3번 & 4번>

28

Preview 3

천재가 남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30

Review 1

혁신과 노력의 시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헤리티지 시리즈 IV - 스트라빈스키>

32

Review 2

고요한 한*, 요란한 흥*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본*>





★ STORY

36

City

Welcome to the Metaverse
메타버스는 신대륙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플랫폼

40

Structure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쇼핑
에이드리언 청 & K11

46

Monthly Docent

4명의 도슨트가 전하는 이달의 문화예술 소식,
그리고 당신에게 추천하는 작품

50

Taste of Others

타인의 취향
아티스트가 추천하는 여유로운 한 편

52

Artist Talk

천상의 하모니가 전하는 위로와 위안
대위 20년 차 보컬 그룹 노을을 만나다.



★ GGAC+

58

GGAC Now

GGAC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 사원 6명 인터뷰

63

Any Question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4

News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

66

Calendar

2022년 2-3월 주요 공연 일정

68

Epilogue

〈예술과만남〉이 독자와 소통하는 방법



SPECIAL

MUSIC ADDS
STRENGTH TO
THE NARRATIVE
AND BECOMES
A STORY IN ITSELF.



음악은 예술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형태로
대중과 만난다. 서사의 힘을 더하고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기록한다. 때로는 그 자체로 서사가 되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억을 남기기도 한다.



음악의 힘: 음악이 우리를 고취시키는 과정

음악은 서사에 힘을 더하고,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완성한다.



늘 음악을 듣는다. 듣는 것이 일이기도 하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것이 지겹거나 힘들지 않냐고 되묻는다. 잠깐, 생각해보자. 자리에 앉아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을 때는 출퇴근 시간이다. 다시 말해 음악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뭔가를 할 때 음악이 흐르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글을 쓰면서, 책을 읽거나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구스타프 밀러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에 없다”라고 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1784년 국악가 피레르 보마르셰가 쓴 희곡 3막 중 2부를 오제리로 완성한 《피레르의 결혼》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오제리로 꼽힌다.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감정이다. 느낌이다. 분위기다. 연주자가 곡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연주의 강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점이다. 악보가 음악의 설계 도면이라면, 그걸 그대로 재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음악가다. 장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강약을 조절하면서 곡의 의미를 새롭게 만든다. 음악은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직관적인 영역이다. 무척 단순한 형태의 예술인 만큼 하위 장르도 많고 연주법이나 악기, 그리고 조음 방식에 따라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다. 음악을 지역이나 민족 등 특정 문화의 고유한 산물로 여기는 이유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으

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단순함 때문에 다른 장르와 접목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보는 음악'과 '듣는 음악'을 구분해 말한다. 영상 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음악의 본디 의미가 퇴색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구분한다. 하지만 음악은 원래 온전히 듣는 것만은 아니었다. 음악은 완기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은 언제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복합 문화예술로 기원한 음악

음악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약 5만 년에서 1만 년 전에 발생했다고 추정하는데, 태고의 음악은 주술을 위해 발달했다고 보는 편이다. 동물 뼈로 만든 피리와 나무를 이용한 원시적인 악기로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거나 출사위에 맞추기 위해 생겨났다는 가설 등이 있다. 이렇게 태고의 음악은 제사나 축제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고 본다. 그때의 음악은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고대와 중세 음악은 사운드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서사와 음악이 결합되었다. 소리를 다루는 동시에 이야기를 전달하고, 운율을 통해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캐릭터가 탄생하거나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음악은 애초에 복합 문화예술이었다. 따라서 텍스트,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형식의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 다시 말해 메시지와 감정, 캐릭터와 플롯이라는 요소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배열해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음악은 고유한 장르와 서사 형식으로 발전했다. 특히 오페라, 영화, 드라마 등 이야기와 결합한 음악은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사회와 정치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했다. 대표적인 것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다. 1784년,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피에르 보마르세가 쓴 희곡 3부작 중 2부를 모차르트가 오페라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 작품은 오페라 레퍼토리의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성공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피가로의 결혼》은 단지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오페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보마르세가 쓴 이 오페라의 원작은 당시 귀족의 작패를 신랄하고 도골적으로 비판해 민중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 때문에 연극 상인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오페라로 재탄생시켰다. 이야기의 소재는 쫓아온다. 소작농의 딸은 결혼하기 위해 영주

에게 첫날밤을 바쳐야 한다는 과담을 기반으로, 알마비바 백작은 결혼을 앞둔 피가로의 애비 신부이자 백작 부인의 하녀인 수잔나에게 초야권을 집요하게 행사하려고 한다. 피가로, 수잔나, 백작 부인은 백작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침내 백작을 망신 주고, 피가로와 수잔나는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올린다. 초야권은 중세 귀족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상징하는 악법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제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민중은 도시 과담처럼 이를 발미로 귀족주의를 비판했다. 연극이 초연된 것은 1784년,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초연된 것은 1786년이다. 프랑스대혁명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789년 일어났다. 나폴레옹은 “보마르세의 연극으로부터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과연 출판과 공연이 급지된 원작을 모차르트가 오페라로 만들어 소개하지 않았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음악은 음향적 쾌감을 전달하기보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가로의 결혼》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영화를 통해서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쇼생크 탈출》에는 이 오페라의 유명한 이중창이 배경음악으로 나온다.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함께 부르는 아리아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Che Soave Zeffiretto)는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이자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곡으로 등장하는데, 주인공 ‘앤디’가 감옥 방송국에서 규칙을 어기고 모든 수감자에게 이 곡을 들려준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허락된 감옥 전체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는 폭력적인 제도와 인간성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매아포인 것이다. 덕분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영화로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는 알게 됐다.

《피가로의 결혼》
3막 중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부르는
이중창이
영화의 중요 음악으로
사용된 영화
《쇼생크 탈출》.





1 1970년대와 1980년대 음악으로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어낸 영화 <보이즈 나 시티>(1990)
 2 뮤지컬 영화 <엑스트라 사이드 스토리>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아 영화로 완성한 작품 (2002)
 3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가는 감동을 선사한 <이라비>(2016)



음악의 진가, 영화와 드라마로 극대화되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와 함께 전달되는 음악은 매우 강력한 대중성을 얻게 된다. 특히 이것은 대중 미디어와 문화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영화음악이 대중성을 얻기 시작했다. 〈춘향전〉(1955)과 〈자유부인〉(1956)이 개봉하면서 클래식 작곡가들이 영화계에 대거 유입되고 전문 영화음악가가 등장했으며, 대중음악 작곡기도 영화에 참여했다. 덕분에 재즈, 팝, 샹송, 탭, 록바를 아우르는 '경음악'이 영화음악에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흐름은 최초의 영화 기획 앨범이라는 〈별들의 고향〉(1974)이나 오태호·장필순·박정운이 참여한 〈굿모닝 대통령〉(1989), 그리고 강인환·김현식·권인하가 참여한 〈비 오는 날의 수채화〉(1989) 같은 작품으로 이어졌다. 이런 작품은 영화와 대중음악의 타이안²⁴ 전략으로, 영화의 흥행에 따라 음악도 흥행한다는 공식을 반영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TV가 강세였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1991), 〈모래시계〉(1995), 〈가이스트〉(1999) 등은 드라마와 음악이 결합한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작품과 음악은 2020년대에 들어 유튜브 등에서 '인생 드라마 OST'라는 키워드로 소비된다. 1997년 영화 〈접속〉은 한국 최초로 라이선스를 획득한 팝송을 실어 상업적 성공을 거둬으며, 〈우리〉(1998) 역시 스코어 앨범으로서는 드물게 100만 장 판매 기록을 세우며 영화음악의 시장성을 확인시켰다. 2000년 이후부터 영화음악은 흘러간 팝송으로



4 한국 클래식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OST의 기틀을 마련한 〈춘향전〉(1955). 5 한국 최초의 영화 기획 앨범으로 제작한 〈별들의 고향〉(1974). 6 한국 OST 최초로 라이선스를 획득한 해리 밥슨 앨범에 참여한 〈접속〉(1997). 7 100만 장 판매라는 기록을 남기며 OST의 가능성을 확인한 〈우리〉(1998).

대체되면서 올드 팝과 동시대의 영상이 결합된 독특한 정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금은 웹툰과 웹드라마 OST가 유행하거나 유적비디오가 고유한 정서와 스토리텔링을 가지면서 음악은 완전히 서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음악에서 리코딩은 완결된 작품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어떤 음악은 늘 '후언거'를 위한 배경음악과 '독립된'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는 양 축 사이에서 영거주출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중요하게 기억되는 영화음악은 대부분 기존에 발매되거나 대중음악가들이 영화와 함께 발표한 '싱글'이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알려진 노래도, OTT에서 줄기차게 플레이되는 옛날 영화도 모두 이런 법칙을 공식처럼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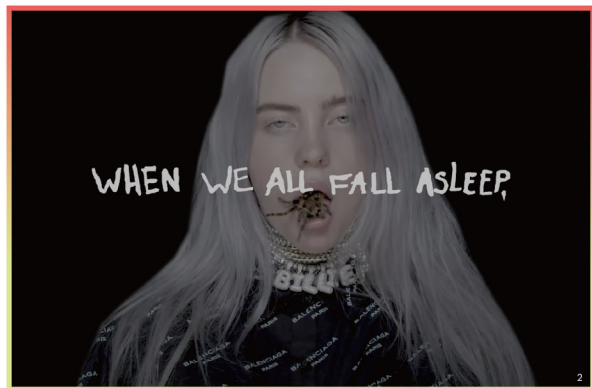


른다. 세상, 음악은 태고부터 현재까지 스토리와 캐릭터가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깨닫는다.

영화음악의 현재를 다룬 2016년 다큐멘터리 <스코야 영화음악의 모든 것>에는 한스 치머부터 대니 엘프먼, 존 윌리엄스, 하워드 쇼어, 트랜트 레즈너 같은 영화음악 작곡가와 제임스 캐머란이나 퀸시 존스 같은 유명한 창작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핵심 테마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반복해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고, 온갖 폐자재를 이용해 새로운 악기를 만들기도 한다. 현대에 관현악을 이용해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영화음악이 거의 유일하다는 얘기도 등장한다.

아쩌면 이것은 애초에 복합 예술로서 사운드와 이야기, 운율

을 다루는 음악이 인류의 사회구조와 기술, 문화가 발전하는 동안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한편, 오히려 음악은 그런 식으로 그 영역을 더 복잡하게 구성하며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신곡이 발표되면 TV나 매거진,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그중 영향력 있는 몇몇 매체와 인터뷰하거나,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비추고 음악을 들려주는 게 음악 홍보의 매뉴얼이었다. 경우에 따라, 예컨대 기사의 제목이나 방송에서의 발언 내용 같은 비음악적 부분의 연에 뉴스를 통해 재생산되면 노출도는 더욱 올라가기도 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연이 압도적 홍보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구조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를 거쳐 음원 플랫폼 검색 순위로 연결되어 음원 차트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에 가수 혹은 음악의 노출도는 홍보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 기사나 방송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 환경이 매스미디어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삼은 사비스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플랫폼 같은 마이크로미디어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음악 콘텐츠'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볼게 된다. 이전에 '음악 콘텐츠' 하면 사실상 음악을 매스미디어에 노출시켜 홍보하는 수단 정도로만 여겨졌다. 뮤직비디오가 대표적이다. 뮤직비디오는 음악을 홍보하는 가장 강





략한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영향력을 확대해온 모바일 환경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도 3분 내의 외 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소비된다. 그래서 내부티브가 반영되는 전체 분량보다는 한순간의 '팔'이나 출연자의 리액션 같은 것이 주로 유통된다. 뮤직비디오도 색감이나 톤을 강조한 이미지 중심의 스타일로 변화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것도 뮤직비디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악 콘텐츠는 단순히 음악을 홍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의 뮤직비디오는 음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에 가깝다. 뮤직비디오를 보지 않으면 음악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음악은 소리를 토대로 감정을 고양시키는 예술이다. 하지만 지금의 음악은 '무언가를 연결하는 예술'에 가깝다. 음악은 소리와 이야기를 연결하고, 대중과 아티스트를 연결하고, 산업과 산업을 연결한다. 이것은 음악이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의 예술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음악은 늘 무언가와 연결된다. 현대의 통신기술과 미디어 환경이 이런 특징을 더욱 강화한다. 초국적 네트워크와 개인 미디어 환경 아래 음악은 기존 가치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된다. '연결'이랄도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기능적으로는 '공유와 소환'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연결하고 연결하는 일, 음악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2021년 이후 대중적으로 히트하는 음악은 SNS를 토대로 탄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여기에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은 극대화되고, 산업적 가치 역시

1 음악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아일렌드의 자작산 음악 영화 <원스> (2006).
2 SNS와 뉴미디어를 통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한 뮤지션 빌리 아일리시.
3 올해까지 뮤지컬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영화로도 제작된 큰 반향을 일으킨 <레미제라블> (2012).

새롭게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 콘텐츠는 기존에 음악을 홍보하는 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나 제작사의 브랜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브랜드 가치는 특히 보수적인 대중문화 시장에서 산인이나 신곡을 발표할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음악 산업과 시장이 모바일 환경으로 재편되며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린 현재, 음악 콘텐츠의 정체성은 단순 홍보물에서 마케팅과 브랜딩, 부가가치의 영역으로 변화·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음악은 대체로 선율과 박자, 음정과 가사로 만드는 규칙적인 소리라고 정의한다. 음악의 3요소로 화성, 리듬, 멜로디를 꼽으면서 그 외의 것은 소음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음악의 힘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음악의 정의가 만드는 쪽에 있다면, 음악의 힘은 듣는 쪽에 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체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과 이야기와 관계가 인생의 음악을 결정한다. 이것이 하나로 모일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음악은 거듭해서 말하지만, 매우 사적이고 복합적인 예술이다. 다시 말해 경험 이야기로 음악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다. 출퇴근할 때, 일하거나 쉬거릴 때 BGM으로 틀어놓는 이유도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

글 채우진 미디어 콘텐츠 기획자, 음악 산업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음악 콘텐츠와 서비스를 기획했다. 저서로 <청춘의 사운드> 등이 있다.

음표로 써 내려간 이야기

음악이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가 들리는 음악이 완성한 작품들.



〈마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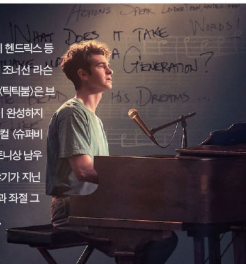
미국, 아니 전 세계 재즈사에 단 하나의 이름을 남긴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 순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지나가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이젠 없이 고개를 끄덕일 테다. 바로 재즈 가수 마일스 데이비스 Miles Davis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재즈 음악을 남겼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영향을 준 아티스트로 비밥, 쿨, 퓨전까지 장르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마일스〉는 그의 전기 영화로, 우리에겐 〈워 머신〉으로 익숙한 배우 돈 치들 Don Cheadle이 주연을 맡았다. 어느 전기 영화처럼 아티스

트가 좌절한 시기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영화는 마일스가 코카인 중독 때문에 사실상 은퇴한 것과 다름을 바였던 시점부터 플래시백 형식으로 그의 과거를 돌아본다. 위대한 아티스트를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는 매우 특별한 일이다. 게다가 흑인 배우로서 재즈 음악을 개척한 흑인 아티스트를 연기한다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일 테다. 직접 연출하고 주연한 돈 치들은 무려 10년 동안 대본을 수정하고, 8년 동안 트럼펫을 연습했으며, 마일스 생전 걸 썬는 모습까지 재연했다. 전기 영화를 넘어 훌륭한 재즈 영화라는 평을 듣는 마일스의 명곡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틱틱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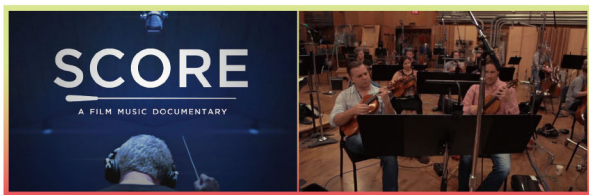
현재 아티스트는 요절한다는 루머가 있었다.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지미 헨드릭스 등이 바로 그들이다. 〈틱틱볼〉 역시 뮤지컬 역사 속 굴지의 작품인 〈헨트〉의 창작자 조너선 라슨 Jonathan Larson의 유작이 원작이다. 〈틱틱볼〉은 동명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다. 뮤지컬 〈틱틱볼〉은 브로드웨이 초연 전날 사망한 조너선 라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본인이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뮤지컬을 동료들이 각색해 무대에 올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뮤지컬 〈슈퍼히어로〉 위크스 직전에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창작자의 압박감과 불안은 다뤘다. 토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앤드루 가필드가 출연하는 등 배우 라인업은 물론이거니와 이야기가 지닌 카타르시스가 남다르다. 비극적으로 떠나간 조너선 라슨이 창작자로서 가졌던 꿈과 좌절 그리고 다시금 도전하는 열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이야기거리다. 코로나 불루를 겪는 2030세대가 보면 더 좋은 영화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

영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는 공포 영화 시청 노하우가 있다. 비로 귀를 막고 보는 것이다. 눈을 감고 봐도 여전히 무섭지만, 귀를 닫고 보면 마치 코미디 영화 한 편을 보듯 무섭지 않다. 그만큼 영화음악은 영화를 높은 수준의 체험이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하지만 그동안 영화 음악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영화 연출의 주요한 요소임에도 배경 음악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영화 속 배경처럼 묵묵히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은 2017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영화음악이 소재다. 전주만 들어도 모두가

이는 〈조스〉, 〈록키〉, 〈반지의 제왕〉 속 영화음악의 뒷이야기와 현재 영화음악 제작 과정을 담았다. 특히 한스 치머 Hans Zimmer 등 영화음악계의 거장이 어떤 관점으로 음악을 구성했는지 볼 수 있을뿐더러 쉽게 볼 수 없는 영화음악 녹음 과정도 생생하게 담았다. 관객들은 주로 영화감독과 배우를 기억한다. 넓게 보면, 한스 치머 등 소수의 영화음악 거장도 포함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거장들 이외에 수많은 연주자까지 카메라에 담아 더욱 의미 있다. 첨언하자면, 한스 치머 역시 마감이 닥치자 영감이 온다는 점에서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안도감과 공감상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OTT와 IPTV에서 시청 가능하다.



2006 메탈리카 내한 공연

코로나19로 다시 보기 어려워진 과거 모습이다. 보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다시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진 것도 있다. 비로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이다. 국내 가수들도 공연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헤드라이너급 해외 가수가 한국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00년대 초반 해외 가수들의 내한은 어쩌면 지금만큼 진귀했을 터다. 그래서 더욱 많은 팬이 내한 공연에 몰렸고, 그들은 전설적인 패창으로 가수에 화답했다. 2006년에 열린 메탈리카의 내한 공연은 이 분야의 전설과 같다. 특이하게도 MBC PD와 방송팀이 녹화한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해외 메탈리카 팬들에게도 전설의 패창 영상으로 각인됐다. 얼마 전 MBC 유튜브 채널 (14F)가 이 공연 촬영을 진행한 당시 PD를 인터뷰했다. 담당 PD는 전주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메탈리카 전곡을 외웠고, 내한 직전에 열린 일본 서머 소닉 페스티벌 Summer Sonic Festival에 가서 촬영 노하우를 해킹했다고



한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헤드라이너급 가수들의 내한과 그 순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PD의 후일담이 이 콘텐츠를 완성시킨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가수의 내한은 또 언제 있을지 막 속할 수 없게 됐다. 다시 한번 헤드라이너급 가수들의 내한을 바라면서 방구석에서 내한 공연의 열기를 느껴보자. 유튜브에서 '메탈리카 내한'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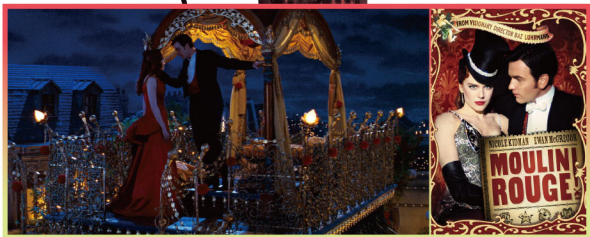
《물랑 루즈》

여러분이 기억하는 첫 뮤지컬 영화는 무엇인가? 아주 어린 나이에 본 디즈니 영화를 제외하면, 아마 지금 소개할 영화가 뮤지컬 영화가 무엇인지 알려준 첫 영화가 아닐까 싶다. 2001년에 개봉한 《물랑 루즈》다. 물랑 루즈 *moulin rouge*는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를 뜻하는데, 이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댄스홀의 이름이다. 실제로 몽마르트는 파리의 유명한 유흥가로, 수많은 술집이 모여 있어 집시 호객꾼을 쉽게 볼 수 있다. 영화는 이 물랑 루즈 안에서 벌어지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원작이 없

는 뮤지컬 영화로, 영화의 흥행 이후 영화

회를 완작으로 한 뮤지컬이 제작되기도 했다. 21세기 초에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인 만큼 나바니의 'Smells Like Teen Spirit' 등 20세기 후반 대중음악을 편곡해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상업적 흥행은 물론이고, 비평적 성취도 얻었다.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문화적 성취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 팝 음악을 영화에도 녹여내고, 영화 외적인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핑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빌 킴 등이 참여한 OST 'Lady Marmalade'는 영화의 흥행 못지않게 크게 성공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봐도 세련된 영화다.



《클래식 콤플렉스》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분이 말을 걸 때만큼 긴장되는 순간이 없다. 단지 구경하고 자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형벌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다. 이와 비슷한 순간이 또 있다. 비로 클래식 앞에서다. 비흐, 헨델, 모차르트의 이름은 알지만 클래식 음악은 '1'도 모르는 나로서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긴장된다. 모르면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알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 가사 없는 음악을 오랫동안 듣고 있기엔 너무 지루하다. 나처럼 클래식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을 저격한 다큐멘터리가 있다. 《클래식 콤플렉스》는 2015년 MBC 경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클래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의 시선에서 클래식을 다룬다. 왜 사람들은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는지,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클래식을 접하면 좋은지 세세히 알려준다. 클래식의 세계를 여행하는 하치하치커를 위한 안내서다. 우아한 클래식을 다루지만, 질문은 부끄러울 정도로 솔직하다. 약기의 가격을 묻기도 한다. 정말 사소한 궁금증마저 전부 담았다. 시청자의 짐을 덜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콘텐츠가 최고라면서 다큐멘터리는 그 정점에 있다. 클래식 울렁증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OTT에서 시청 가능하다.



〈비틀즈: 갯 백〉

1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가수를 꼽는다면? 심증팔구 이 그룹을 말할 것이다. 요즘 10대들도 이들의 얼굴은 모를지라도 음악을 들어보지 않은 이는 없다. 바로 비틀즈다. 만약 이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인 비틀즈와 가장 퍼터 잭슨이 만난다면 어떨까? 지금 소개할 영상이 이 상상상에 대한 답이다. 〈비틀즈: 갯 백〉은 2021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Let It Be〉 앨범 제작 과정을 담은 시리즈다. 1969년 비틀즈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TV 쇼와 다큐멘터리로 내보내기 위해 녹화한 60여 시간의 영상과 150여 시간의 음성 녹음을 퍼터 잭슨이 편집했다. 편집 기간은 무려 4년으로, 러닝타임 총 7시간 48분의 3부작 TV 시리즈다. 천재 아티스트들임에도 비틀즈의 앨범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육상 공연으로 알려진 1969년 1월 30일 공연을 준비하지만, 사실 해당 공연은 성사 자체가 불분명했다고 한다.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멤버들이 하나씩 해내는 과정을 담았다. 흔한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사실 음악의 역사 자체다. 팝의 역사를 한참 한참 수놓는 과정을 담은 역사 기록물이기도 하다. 그리 건조하지만은 않다. 물론 해체 직전 보이는 멤버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 기류도 담고 있다. 그 기류를 윤투와 밝음으로 극복하는 멤버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비틀즈 팬이 아닐지라도 훌륭한 음악 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추천한다.



비운세의 〈홈커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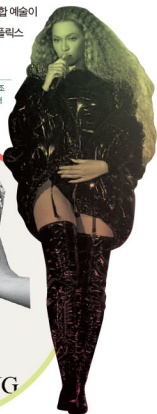
질문을 21세기로 돌려보자. 21세기 최고의 팝 엔터테이너는 누구일까? 저스틴 팀버레이크? 레이디 가가? BTS? 인종과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적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분명히 비운세일 것이다. 11주 연속 1위를 거둔 걸 그룹 데스니스 치일드(Destiny's Child)로 데뷔한 그녀는 무려 그래미 어워드를 스물여덟 번 수상한 최고의 아티스트다.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은 꾸준함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든 용맹한 그녀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니, 바로 출산 후 공백이 떴다. 제이지와 결혼한 비운세는 2012년 딸을 낳고, 2017년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 지금 소개할 〈홈커밍〉은 출산 직후 비운세가 2018년 코첼라 밸리 뮤직 &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비운세는 미국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페스티벌을 성동기 출산 후 첫 컴백 무대로 선택했다.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에 선 최초의 흑인 여성 아티스트로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비운세는 이 무대 위에 '흑인 대학 빅 밴드'라는 흑인 문화 정체성을 올렸고, 곳곳에 블랙 페미니즘을 녹여냈다. 다큐멘터리 제목처럼 역사에 묻혔던 흑인 문화가 무대 위로 화려하게 홈커밍했다. 비운세의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는 따로 앨범이 판매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무대라는 상품을 소비한다. 이때 상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안다면, 상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미식처럼,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전후 배경을 알면 더 좋다. 비운세라는 불세출의 아티스트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홈커밍을 준비하는지, 현대 대중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글 구현모 미디어관련 일을 한다. 산업 구조와 그 안에서 이야기를 글린다. 현재 미디어 산업 전문 뉴스레터 '이거야드들' 운영 중이다.



HOME COMING
비운세 필름



위대한 순간을 연출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로 꼽히는 <피가로의 결혼>의 연출을 맡은
장서문 연출가와 나눈 서사와 음악 그리고 공연 이야기.

여라모로 아쉽고 아쉬운 시
절입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탈리아
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곳의 일상은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분이 일상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연계 역
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
재까지도 상황에 따라 공연
이 줄지어 취소되는 등 위기
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긍정
적으로 생각하면 당연시하
던 일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역
사나 예술 작품이 아닌 현실
에서 팬데믹을 직접 경험하며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표출
하는 다양한 모습에 관심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
금까지 엄청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피해
와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한 도
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조금 더 여
유 있게 느껴집니다.

오페라 연출을 아직 낯설게 느끼는 대중이 많습니다. 오페라
에서 어떤 역할과 작업을 수행하시나요? 오페라라고 해서 다
른 공연 분야의 연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구상을 무대 위에 실현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다만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연극에서 전문화되기 시작한 연출의
 역할이 오페라에는 한 세기가 늦게 도입되었고, 음악에서 지
 휘자의 역할이 워낙 압도적이라 보니 초반에는 외적인 관점에서
 무대나 의상에 관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문
 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출 본래의 역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굳이 연극 연출
과의 차이를 꼽자면, 텍스트
가 전부인 연극은 연출의 해
석이나 방향이 훨씬 자유롭게
열려 있는 반면, 오페라나 뮤
지컬 같은 음악극의 경우 작
곡가가 이미 음악에 제시한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대본
분석과 함께 음악을 분석하
는 작업을 병행해야 연출적
으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페라에서 연출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종합예술
이라 불리는 만큼 극, 음악,
무용, 미술 등 여러 장르가 작
품 안에 하나의 키워드로 공
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
제입니다. 고유성이 강한 각각
의 장르가 서로 조화를 이루
지 못하면 결과물이 산만해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 작품이 난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관
객이 작품에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페라에
서 연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대의 아주 작은 소품이나 장치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기로 유명합니다. 본인의 연출 스타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소품이나 장치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
기보다는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연출 과정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
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작품 분석인데,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황이나 캐릭터들의 이
미지가 단순화될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가 단순
해질수록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더 구체화되고, 크리에이티브
팀과의 작업이 수월하고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피가로의 결혼〉을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올립니다. 오페라가 낯선 사람도 한 번쯤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어떤 부분이 관람 포인트일까요? 초보 오페라 관람객을 위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많은 오페라 가운데 대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모차르트 또한 오페라 작곡가 중에 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오페라에서 극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극이 음악과 접점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밀도 있고, 모차르트의 재치와 천재성이 두드러지죠. 모차르트가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는지 감상하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섭니다. 이번 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 중인가요? 경기필하모닉의 제의를 받기 전부터 경기필의 빅 팬이었습니다. 협업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세해에 받은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오페라를 연출할 때마다 작품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서 있는 것과 비슷한 감정인데, 이것은 작품을 더 이해하고 싶게 만들고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좋은 작품을 더 많은 관객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모차르트의 후기 오페라 〈코지 판 투테 Cio, fan tu te〉를 번역한 작품 〈피가로는 다 그래〉. 장서מן이 연출을 맡아 신작인 오페라를 완성했다. (2020).
2 장서מן이 연출을 맡아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 등 각 장르의 특징을 모아 완성한 오페라라 작품인 〈가면의 향기〉. (2012).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미시모 자네티 지휘자는 물론 소프라노 박하나,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베이스 손혜수 등 국내 최정상 성악가가 함께합니다.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고 순간순간을 빛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필의 연주들을 때마다 미시모 자네티 지휘자님의 명확한 음악적 디렉션과 그것을 완성도 있게 끌어내는 탁월함에 늘 감탄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혹사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마찰이 생길까 염려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지난번 스트라빈스키 연주차 내한하셨을 때 이번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



을 보여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직업에 대해 저는 물론 지휘자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악가들도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이 또한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나 파다나니 같은 명품 악기가 그렇듯이 명성 있는 성악가들도 퀄리티 높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심세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역할을 즐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캐릭터를 개성 있게 구상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팀 역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되는 연습기간과 크리에이티브팀의 결과물이 더해져 그분들의 매력이 최대한 관객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좋은 공연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하는 편입니다. 좋은 공연을 접하면 그 자체로 감명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관객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공연의 수준을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가 원하는 장르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면서 관객의 수준이나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체는 관객임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동시에 클래식 장르가 이 부분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찾는 것이 장려가 존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직업에 대해 저는 물론 지휘자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악가들도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이 또한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공연 문화나 작품 수 등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몇 년 사이 공연문화 시장이 커진 데 비해 여전히 클래식 장르의 관객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연 시장은 어느 한 장르에 관객이 몰렸는데, 그 관객을 클래식 장르로 끌어올 방법은 마케팅과 더불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연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것은 첫째로 장기적으로 공연을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다수의 기관이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와 설정입니다. 이 점이 가장 아쉽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공연장은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라이브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기와 감동을 통해 관객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하는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서훈 연출가는 오는 3월 공연 예정인 *경이들의 콘서트마에스트라*(피카토의 결혼)의 연출을 맡았다.

글 변영부



STAGE

Preview 1

검증된 김동과 원희의 무대가 올해도 펼쳐진다
2022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공개

Preview 2

음악으로 집결된 평화의 순간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 (슈만 교향곡 3번 & 4번)

Preview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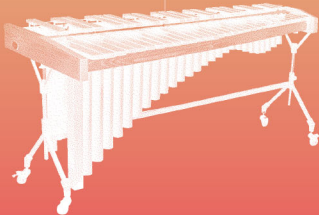
천재가 남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Review 1

혁신과 노력의 시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헤리티지 시리즈 IV - 스트라빈스키>

Review 2

고요한 한*, 요만한 흥*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본*)



더욱 탄탄해진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아트센터의 2022 레퍼토리 시즌이 공개됐다.



서만 만날 수 있는 시즌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관객에게 가까이에서
좋은 작품을 가장 먼저 관람하는 기쁨을 제공하고, 수도권 관객에게는
검증된 작품으로 경기도예술단에 대한 믿음을 쌓아간다.

20

한다. 지난 12월 22일 봄 시즌 작품에 한해 티켓 오픈을 진행했으며,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여름과 가을·겨울 시즌 티켓 또한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또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 좌석 띄어 앉기'로 거리두기 좌석제를 계속 운영한다.

풍성한 볼거리로 무장한 2022 레퍼토리 시즌 공연

각 예술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극단은 2022년 레퍼토리 한 작품, 신작 네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맥베스>(11월 3~13일)는 욕망의 이면에서 인간의 심리에 집중했던 (레이디 맥베스)와 딜라, 욕망과 탐욕으로 파멸해가는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낼지 무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다양한 관객층을 위해 준비한 5월의 '어린이 연극 축제'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2021년 초연 당시 파격적 이야기와 메시지로 큰 화제를 모은 한태숙 예술감독의 (파울린 아이)(6월 15~26일)는 새로운 캐스팅과 공연장에서 만난다. 제작진과 배우 모두에게 작품을 급입으로 발전시킬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더욱 깊이진 내용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경기도무용단은 경기팔하모닉오케스트라와 최초로 칼레바레이한 무대 <순수너클레식>(4월 15~17일)을 시작으로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를 꿈꾸며 경기도무용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품 <하랑-함께 날아오르다>(6월 25~26일)로 우리 춤이 지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냈다. 지난 해 경기도무용단과 정구호 연출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경합 The Battle>(11월 26~27일)도 다시 감상할 수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예술단의 색깔이 드러나는 무대를 이어간다. <장단의 민족> 시즌 1은 한국 고유의 리듬 체계인 장단이 숨 쉬는 연희판을 새롭게 해석하며, <四季^{사계}의 노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성악 앙상블 '소리봄'을 중심으로 정가, 경기민요, 범패, 판소리의 빼어난 눈대목을 골라 새로운 편곡으로 선보인다. 2020년 <봄, 시나위>와 2021

년 <시나위 일렉트로니카>를 이어가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창작 프로젝트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2 - Trance>도 준비하고 있다. 화려한 협력 창작진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창작과 전통, 작곡과 즉흥의 경계를 넘는 소리의 황홀경이 펼쳐진다.

2022년 경기팔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만족도 높은 명곡과 대작으로 관객을 만난다. 마시모 차네티 예술감독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할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3월 3~5일)을 시작으로 웅장한 호모가 울림을 주는 <베르디 레퀴엠>(7월 23~25일)까지 선보인다. 여기에 2021년 코로나19 확산세로 선보이지 못한 <슈만 교향곡 3번 & 4번>(3월 19~20일)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마스터피스 시리즈에서는 <드뷔시 & 레스피기>(4월 3일)를 통해 레스피기 로마 3부작 중 마지막 '로마의 분수'를 연주하며, 장나 부지휘자의 섬세하고 따뜻한 지휘로 이물·무소속스키 진림회의 그림(5월 27~28일)에서는 '콩쿠르의 칸' 바이올리니스트 송자원이 연주하는 '글라주노프 바이올린협주곡'도 감상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에서만 만나는 브랜드 시리즈도 이어갈 예정이다. 책, 영화, 음악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즐거운 토크 콘서트 <랑데뷰>(8월 18일)은 올해도 어김없이 목요일 저녁에 관객을 찾아가는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진행을 맡아 편안하게 관객을 이끌고, <별간 책방>에서 함께한 최동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다. 팽일 오전을 책임지던 <브란치 콘서트>는 <고전적 음악, 아침>(4월 21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전을 깨운다. 2021년 가장 핫한 음악 장르, K-뮤직의 선두 주자, 국악을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팝 콘서트>의 세 번째 시리즈는 '우리 音樂^{우리 음악} 색^색'을 입다라는 부제로 돌아온다. 12월 산타의 계절에는 전통 판소리 <흥보기> 중 '제비노정기'를 재해석한 가족 국악 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12월 3일)가 찾아온다.

공연단



(시나위)



(하랑-함께 날아오르다)

2022

REPERTORY SEASON

검증된 감동,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어벤저스'가 2022년에도 펼쳐진다.

MARCH - MAY

3.19-20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 (슈만 교향곡 3번 & 4번)
슈만이 작곡한 4개의 교향곡 전곡 사이클 프로젝트로
2021년 7월의 교향곡 1번과 2번 연주에 이어
교향곡 3번과 4번 연주로 사이클을 완성한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I (드뷔시 & 레스피기)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작품과
레스피기 로마 3부작 중 마지막인
'로마의 분수'를 연주한다. 특히 자서전 피아니스트
임주희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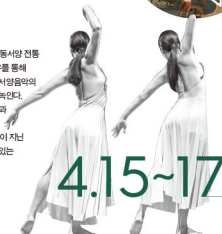


4.3

경기도무용단

(순수-더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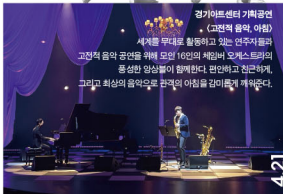
(순수-더 클래식)은 동서양 전통
(클래식) 예술의 조화를 통해
우리 춤의 고귀함과 서양음악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녹인다.
우리 춤 고유의 호흡과
리듬 아름다운
색채를 담아 우리 춤이 가진
품격을 재발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4.15~17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고전적 음악, 아침)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고전적 음악 공연을 위해 모인 16인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앙상블이 함께한다. 편안하고 친근하게,
그리고 최상의 음악으로 관객의 아침을 감미롭게 깨워준다.



4.21

4.30~5.1

엄마 이야기



경기도극단

어린이 연극 축제 1 (엄마 이야기)

아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여정을 그린 안데르센 동화 연극
(엄마 이야기)는 강한 모성과
죽음의 심리를 통해 사랑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섬세한 오브제를 활용한 무대예술과
환상적인 음악이 준비돼 있다.

5.5



경기도극단

어린이 연극 축제 2 (라이카)

2019년 스페인 레리다 연극 축제 최우수
무대(순수)와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뽑은
최우수 공연인 (라이카)는 1975년 냉전과
우주 경쟁이 한창인 모스크바에서
살아난기 위해 애쓰는 라이카라는
작은 개가 겪는 환상적 이야기다.

경기도극단

어린이 연극 축제 3 (바다쓰기)

한글의 유행어와 배움의 소중한, 그리고 잃는 것이 전하는
무궁무진한 힘 등 배우기 쉬운면서도
알쏭맞은 한글로 인해 벌어지는 네 가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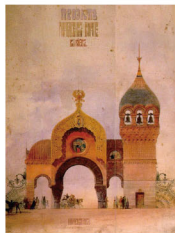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장단의 민속〉 시즌 1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한국 고유의 리듬 체계인 장단! 장단이 살아 숨쉬는
세로로 늘어놓은 조선 최초 여성 곡두서,
경기도 안성의 바우덕이 신화가 살아난다.

5.27~28

경기팔하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II (무소륵스키 전람회 그림)
성 요한제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고 알려진
무소륵스키의 교향시 '인들산에서의 하룻밤'과
친구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그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을 연주한다.



JUNE - AUGUST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四季의 노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성악 앙상블 소리들(황영신,
하미아, 박진희, 심현경)을
중심으로 정기, 경기민요, 반배,
판소리의 빼어난 선율을 골라
새로운 편곡으로 펼쳐 보인다.
익숙한 듯 낯선 소리로 마음을
두드리는 노래의 향연에 빠져든다.

6.11~12



경기도극단
연극 〈파울린 아이〉

미국 현대 연극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샘 셰퍼드 Sam Shepard의
컬작이 경기도극단에 의해 재탄생한다. 종말을 통해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역설적으로
언어는 파괴적이면서 매력적인 이야기의 연극.

6.25~26

경기도무용단

〈희망- 함께 날아오르다〉

경기도무용단이 미래를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작품은
새대를 아우르는 신구*의 조화, 실험과 열정,
경험과 자신감이 함께 날아오른다. 신체 안무가들과
중견 안무가들이 만들어내는 한국 춤의 미래가 펼쳐진다.



6.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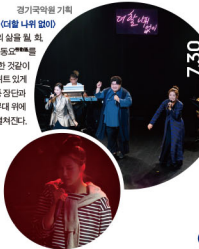
7.23.25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르디 레퀴엠)

소프라노 손현경, 메조소프라노 미라란나 피솔라토, 테너 김우영, 베이스 안토니오 디 마테오가 출연하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총 150여 명의 연주자가 가장 사울베는 레퀴엠 중 하나인 (베르디 레퀴엠)을 연주한다.

경기국악원 기획
봄콘서트 III (다할 나위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삶을 철, 화, 수, 목, 금, 토, 일에 맞춘 노동요를 통해 탄산음료를 완성한 것같이 특 쏘듯 센스 있고 유틸 있게 표현한다. 전통 정단과 현대적 사운드가 두대 위에 펼쳐진다.



7.30

경기아트센터 기획
토크 콘서트 <광대복>

경기아트센터 대표 토크 콘서트 시리즈 <광대복>.
이제는 때아날을 수 없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사회와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 <이동진의 빨간책방>의 최동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해 다양한 출연진과 빛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8.27

경기아트센터 기획
봄콘서트 III (엑스^{XXX}로 놀아보세!)

(동류대중-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톱 10에 오른 핫하고 힙한 퓨전 밴드
엑스^{XXX}가 우리 음악의 선율과 리듬을
기본으로 기타, 베이스, 드럼 등을
장착한 트런디한 음악으로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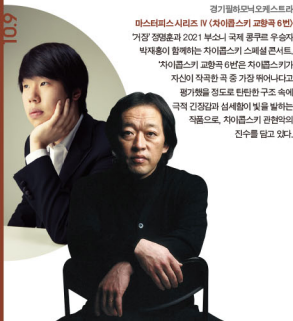


SEPTEMBER - DECEMBER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게임 음악회 <라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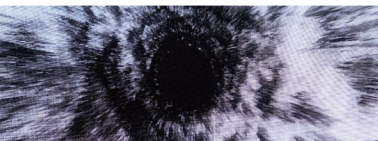
국내 최고 온라인 게임 <라니자>의 게임 음악을 국내 최초로 실현한다.
유명 작곡가 안진우와 미국의 영화-드라마 음악 제작자 조이 뉴먼(Joy Newman)이
작곡한 것으로,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정통 클래식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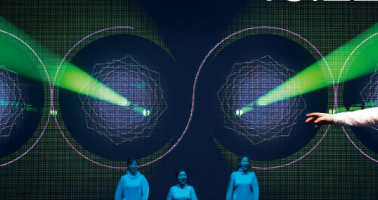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티피스 시리즈 IV (차이플스키 교향곡 6번)
거장 정명훈과 2021 부산국제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이 함께하는 차이플스키 스메실 콘서트.
'차이플스키 교향곡 6번은 차이플스키가
자신의 작곡한 곡 중 가장 뛰어난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뛰어난 구조 속에
극적 긴장감과 섬세함이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차이플스키 관현악의
진수를 담고 있다.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2-Trance)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의 과감한 변신과 음악 실현의 지평을 보여준 2020년 공연
(新, 시나위)과 시나위의 창조 정신과 일렉트로니카의 만남으로
새로운 컨셉퍼레이드 한국 음악을 선보인 2021년 (시나위 일렉트로니카)에 이어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의 창작 프로젝트는 2022년에도 계속된다.



10.22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한테숙 예술감독이 연술을 맡아
욕망과 탐욕 앞에 굴복하고
피할래하는 맥베스를 무대로
불러온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맥베스 부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연극계의 전사를 받았던 대표작
(레이디 맥베스)를 뒤로하고 다시
원작 앞에선 거장의 해석에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11.26~27



경기도무용단

(강함, The Battle)

일제강점기 기생 양성 학교 '수원 관변'을 배경으로 애비 기생들의 수련,
경쟁, 출가춤이 스토리 무용곡으로 펼쳐진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
한국무용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연술가 정구호가 기존의 정제된
미장센에서 벗어나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의상, 세련되고 일체적인 무대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현대적 공연을 자랑조한다.



경기국악원 기획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서울 어린이연극상 대상을
수상한 가족 국악 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는
정통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노조끼'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 특유의
해학의 산-나는
장단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릴 수 있다.



12.3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반향 2022: 默*)

음악과 영상^{multimedia}에 대한 생각을 '침묵'이란 주제 아래 작곡한
초연 작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관객과
연주자뿐 아니라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음악을 통해 영감을 하는
의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창작했다.

12.2~3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 〈슈만 교향곡 3번 & 4번〉

음악으로 점철된 평화의 순간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슈만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사이클을 완성하는 무대를 갖는다.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생전에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멘델스존과 함께 독일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을 남긴 뛰어난 작곡가이자 음악 평론과 저술 활동을 통해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베를리오즈 등 여러 음악가를 알리고 도움을 줬지만 동갑내기 피아니스트 쇼팽이나 40년 선배 베토벤 등에 가려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슈만은 1810년 작센주 츠비카우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출판업자이자 저자인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상당했다고 한다. 열네 살 때 아버지가 출간한 책에 슈만의 원고가 실렸고, 열일곱 살에는 시를 썼다. 여기에 일곱 살 때부터 시작한 피아노에도 두각을 드러내며 예술적 가능성을 일찌감치 보여주었다. 아버지 역시 슈

만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채고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를 사사할 구상을 했지만 1826년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슈만은 음악 수업을 마루고 1828년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 따위는 슈만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라이프치히에 온 직후 그는 프리드리히 비크의 문하에서 피아노를 배운다.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이 하나 발생한다.

당대 최고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던 쇼팽을 능가하기 위해 담배 삼자와 술을 이용한 기묘한 장치로 연습하던 중 오른손 두 손가락에 영구적 손상을 입어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 피아니스트의 길은 포기했지만 슈만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글쓰기 능력을 살려 음악 평론가와 작곡가로서 삶을 결심한다. 1830년 처녀작 '아베크 변주곡'을 발표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듬해 하인리히 토른에게 정식으로 작곡을 배우기 시작한다.

교향곡의 시작, 작곡가로서 재능을 꽃피우다

슈만에게 1841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교향곡의 해'로 불리는 이 시기에 슈만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1번과 4번 초안을 완성한다. 이때부터 작곡가 슈만의 뛰어난 재능은 꽃피우기 시작한다. 1850년 슈만은 뒤셀도르프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대 지휘자, 그리고 음악감독으로 초빙되는데, 이때 뒤셀도르프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명받아 완성한 것이 교향곡 3번이다. 이 곡은 뒤셀도르프의 풍경과 소리를 담은 작품으로 총 5악장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2악장은 라인의 아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4악장은 펠른 대성당의 의식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곡가 슈만의 작품 세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내 클라라 슈만과의 사랑을 살펴야 한다. 그는 피아노 스승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 클라라를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된다. 그녀 역시 당시 뛰어난 피아노 실력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신동이었다. 실제로 클라라는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치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한다. 슈만은 스물세 살이 되던 해, 아홉 살 연하인 클라라와 결혼을 결심하지만, 명망 있는 신동 피아니스트와 빈틈없이 작곡가가 결혼하는 데는 난관이 많았다. 스승과 각종 다름과 법적 싸움까지 이어간 끝에 결국 슈만은 클라라와 1840년 결혼에 성공한다. 이 지난하고 곤란한 사랑의 결실이 담긴 곡이 바로 교향곡 4번이다. 교향곡 4번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음악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고 평가받고 있다. 이 곡은 교향곡 1번과 같은 해에 작곡했지만 처음 선보였을 당시에는 평이 좋지 않아 출판을 보류했다. 시기적으로는 2번과 3번보다 먼저 작곡했지만, 10년 후 작품을 고쳐 다시 발표하여 4번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전적인 교향곡 형식에서 벗어나 각 악장이 휴식 없이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아내 클라라 슈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긴 곡으로 클라라의 스물두 번째 생일에 맞춰 그녀에게 헌정했다.

슈만은 초기 낭만주의의 형태를 구한 선구자이자 문학적 재능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결합해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녀가 악곡을 통해 모든 예술의 통합을 시도했다면, 슈만은 문학적 관념 위에 음악을 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음악으로 쓴 시 같은 느낌을 준다. 당대 음악가들과 상당히 다른 독창적 스타일을 추구하고 구사했는데, 화성 측면에서도 참신함을 이끌었고, 특히 낭만주의 음악가 중 슈만의 리듬 감각이 최고라고 해도 손색없을 만큼 인상적이다. 부정음표나 당김음을 자주 사용하고 강력하게 나타내며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리듬을 통해 표현했다.

- 일시 2022년 3월 19일(토) 오후 5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R석 4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 문의 031-230-3322



글 변영무



경기아트센터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천재가 남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

오페라 연주의 명장 마시모 자네티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모차르트의 마스터피스.

모차르트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총 22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그중 작곡하다 중도에 포기해 미완성으로 남은 오페라는 <차이데 Zaide>, <카이로의 거위(Ucca del Cairo)>, <숙아 넘어간 신랑(Lo Sposo Deluso)>까지 총 3편이며, 정슈필 <한자의 돌(Der Stein der Weisen)>은 모차르트와 다른 4명의 작곡가가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이다. 또 <이집트의 왕 티모스>(*Thamos, König in Ägypten*)는 온전한 오페라가 아니고 일종의 음악극에 사용된 부수 음악이다. 따라서 22편의 오페라 중 제대로 완성한 작품은 17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명한 그의 생을 감안해야 하지만 절대 작품 수로만 보면 당대 오페라 작곡가들의 작품 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게다가 17편의 오페라

중 모차르트의 진가를 보여주는 명작은 원숙기에 완성한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시 판 투테>, <마술피리> 등 4편이며, 여기에 <이도 메네오>, <후궁으로의 도주>를 포함해 총 6편 정도를 걸작이라고 일컫는다. 결코 많지 않은 여섯 작품으로 그는 현재까지도 베르디, 푸치니, 비그너, 로시니와 함께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손꼽히고 있다. 거장이 남긴 마스터피스는 물량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크게 세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신화나 고대 영웅을 소재로 하는 3막의 이탈리아 오페라), 오페라 부파(*Opera Buffa*(희극이나 소극^{코미디}적 내용의 이탈리아 오페라) 그리고 오페라





정슈필(Opera Singpiel)(대화에 음악이 삽입된 독일 오페라)이 그것이다. 다만 현존하는 모차르트의 최초 오페라인 (최초이자 최고의 계사에 대한 책무(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s))나 몇몇 단막극처럼 딱히 장르를 구별하기 힘든 작품도 있다.

모차르트가 남긴 인류의 유산, 《피가로의 결혼》

아연 작품 가운데 세기를 넘어 사랑받는 작품이 있다. 오페라 마니아든 아니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남긴 위대한 업적 중 서사와 멜로디가 가장 아름다운 곡이며, 세기의 천재가 남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오페라'로 꼽히는 명작이다. 총 4막으로 구성된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 희극 작가 피에르 보마르셰의 희곡 '피가로 3부작(Figaro Trilogy)' 중 2부를 바탕으로 모차르트가 작곡했다. 피가로 3부작은 풍자 코미디 희곡으로 쓰였다. 1부 《세비야의 이발사(Le Barbier de Séville)》, 2부 《피가로의 결혼(Le Mariage de Figaro)》, 3부 《죄 많은 어머니(La Mère coupable)》로 구성됐는데 이 중 《피가로의 결혼》은 18세기 최대 히트작으로 꼽힌다. 파리 오페라 국립극장(Le Theatre de l'Opéra)에서 초연할 때 물러든 인파로 3명이 앉아서는 등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마르셰리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작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피가로의 결혼》은 당대 사회를 통렬히 비판해 전 계층과 연향을 넘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 제5막에 나오는 피가로의 긴 독백은 프랑스대혁명 직전 구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민감한 정치·사회 문제로 극 중 배경은 프랑스가 아닌 스페인으로 설정했지만 결렬로 인해 공연 허가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공연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작품에 대한 은 국민의 관심 때문에 결국 공연을 허락한다. 이후 《피가로의 결혼》은 루스, 볼테르의 저술과 함께 프랑스대혁명을 부른 세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피가로의 결혼》을 초연한 지 5년 후인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난다.

풍자와 사랑, 혁명을 낳은 작품

1785년 작사가 로렌초 다 폰테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대본을 완성한다. 이 대본은 1년 전인 1784년 프랑스에서 상연해 큰 성공을 거둔 보미르셰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에 기초한 것으로 귀족들의 타락과 위선을 조롱하는 내용 때문에 빈에서는 상연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연극의 작품성에 주목한 다 폰테는 민감한 내용을 빼거나 순화한 뒤 남녀가 밀고 당기는 사랑 이야기로 테마를 바꿔 상연 허가를 얻어냈다. 그리하여 모차렐 오페라를 작곡할 기회를 얻은 모차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이듬해 열린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피가로의 결혼》은 크리스토프 클루크가 주창한 '극과 음악의 일치'를 한 단계 뛰어넘은 작품이었다. 이 오페라에서는 역할이 있는 등장인물이 무려 11명이나 되는데 각 배역은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공연 내내 빠르게 움직인다. 게다가 각 배역은 노래 솜씨뿐 아니라 연기력과 춤 솜씨도 갖춰야 하며, 단독 아리아보다는 중창과 합창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창적인 갖춰서는 안 되고 다른 배역과의 호흡에 상당히 신경 써야 한다. 쉽게 말해 혼자 '뛰'는 것은 물론 혼자 '차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비록 원작의 풍자와諷刺함이 희석되고 좀 더 가벼운 희곡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원작의 깊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어 한 편의 심리극을 보는 듯도 하다. 또 일종의 도덕론 차원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 《피가로의 결혼》이 괜히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상연되는 오페라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 일시 2022년 3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3월 5일(토) 오후 5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 문의 031-230-3322



경기발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이자 예술감독마시모 주네리의 오페라 전문기로 명성이 높다. 그가 오랜만에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 2019년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를 지휘해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는 그가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을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오페라'로 손꼽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뛰어난 재치와 귀족 사회에 대한諷刺한 풍자가 돋보이는 한 편의 시트콤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삽입되어 유명해진 편지의 이중창도 이 오페라의 아리아 중 하나다. 무대 배경과 의상이 오페라 못지않은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며 스포르도 박하나, 베조스스피리노 김정미, 베이스 손혜수 등 국내 최정상 성악가가 함께한다.



경북필하모닉오케스트라 <헤리티지 시리즈 IV - 스트라빈스키>

혁신과 노력의 시간

유럽 음악 양식에 러시아 민요의 선율을 녹인 이국적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매력적인 무대.

그동안 수많은 음악회를 감상했지만 스트라빈스키의 곡으로만 구성된 연주회는 처음 접하는 것 같다. 그만큼 스트라빈스키는 가깝고도 멀다. 하지만 스트라빈스키는 멀고도 가까운 작곡가이기도 하다. 20세기 음악이지만 신고전주의 성향을 지향해 고전음악 팬들의 취향과 단단하게 결부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동시대 음악이 보여준 생경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불꽃놀이 같은 실험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고 구조적 견고함을 지녀 반복해서 감상할수록 차분히 곱들여지는 게 스트라빈스키 음악이 지닌 힘이다.

프로그램 노트를 작성한 음악평론가 최은규의 견해대로 이날

공연은 점층법같이 전개됐다. 현악 합주 편성인 '뮤즈를 인도하는 아폴론' 1947년판은 20세기 정신이 드러나지 않은 반골의 날은 세우지 않은 작품이다. 까탈스럽지 않게 고전적으로 제 시한 발레 음악이었다.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스트라빈스키적 세계에 발을 들이는 데는 안성맞춤인 작품이다. 세월이 술을 익게 만들어 풍미를 높이듯이, 20세기에 들은 스트라빈스키와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듣는 스트라빈스키는 뭔가 다르다. 스트라빈스키가 '진고전'이 아닌 그냥 '고전'이 되어가는 작곡가임을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다.

'몰차넬라'의 편본은 다양하다. 1920년 21막 구성의 성악이

들어가 발레 음악이 완성됐다. 1924년에는 성악을 편 한악 모음곡이, 1926년에는 5악장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구성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이 등장했고, 1934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모음곡이 발표됐다. 6악장짜리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모음곡'도 있다. 이날 연주한 1949년 최후 버전은 가장 많이 연주하는 판본으로, 1924년 모음곡을 8개 악장으로 재편곡한 오케스트라 모음곡이다. 스트라빈스키는 페르글레사의 작품을 소소로 소련성임에도 화려한 색채감과 타악기적 리듬이 강조되는 강렬한 효과를 뽑아냈다. 은은한 나무 빗발 홀을 카펠레온같이 들을였다. '별세' 1919년 버전이 가장 큰 편성의 마지막 곡이었다. '카세'이 우리들의 지옥의 춤에서 고양아랍누리 하이든홀의 진동이 운문으로 느껴지고, 나무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저음에 몸이 들썩일 정도로 연주 효과가 돋보였다. 격렬한 선율 속에서 생명력을 느꼈다. "나는 살아 있다. 더 살고 싶다고 삼장이 고통치며 말하는 것 같았다. 카세이의 방법이 풀려나는 자장가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광고로 약속한, 공주와 왕자가 맺어지는 '피날레'까지 근사했다. 러시아어에서 '별세'는 왕자에게 잡혀 갇탈을 주는 존재이지만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별세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공연장 전체를 선했다. 세 곡 모두 임박로 지휘한 마시모 자네티는 놀라움 정도로 음악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그의 표정에는 언제나 음악에 대한 애정과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감지된다. 멋진 솔로를 연주한 콘서트마스터 정하나도 이번 연주의 완성도를 높인 주역이다. 그는 경기필하모닉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마시모 자네티는 놀라움 정도로 음악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그의 표정에는 언제나 음악에 대한 애정과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감지된다. 멋진 솔로를 연주한 콘서트마스터 정하나도 이번 연주의 완성도를 높인 주역이다.

많은 오케스트라에 비해 경기필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같은 존재다. 목관과 관악이 덩달아 분발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장이 연상되는 타악기의 열정이 떨림 속에 버무러졌다. 스트라빈스키는 지금까지 어떤 레퍼토리보다도 효과적이고 자극적이었다. 경기필은 이번 연주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은 두려워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지의 영역에 한 걸음 발을 디디어야 한다.

이번 공연의 의의는 마시모 자네티와 경기필하모닉의 브랜드 파워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믿고 들을 수 있는 조합이란 신뢰가 부임 초창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두터워졌다고 본다. 빌다르 협연자가 없는 음악회였지만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시모 자네티의 공연이 늘 그러하지만, 이번 공연에는 특히 서울에서 은 음악팬이 많이 눈에 띄었다. 공연의 퀄리티만 좋다면 고양아랍누리 정도는 그리 부담스러운 거리가 아니다. 경기필하모닉은 본진인 경기아트센터 등 경기도 관악에서 경기도민 청중을 더 불러 모아야 한다. 그들이 서울 못지않은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경기필하모닉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뉴욕, 시카고, 베를린, 빈, 암스테르담 등 도시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오케스트라가 떠오른다. 경기필하모닉이 경기도의 상징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글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학구적인가 우리들 글보다 음악 애호가 무족한b의 일편모로서 감동의 온기를 자숙사귀를 예시지를 지향한다.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본〉
 고요한 한恨, 요란한 흥

폭넓게 춤추며 형형색색 모습을 바꿔가는,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

화선지 위에 묵■ 먹은 붓이 잔잔히 내려오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색종이로 바뀌더니 일찍달록 크레파스가 뒤덮였다. 경기도무용단이 2021 레퍼토리 시즌 작품으로 선보인 〈본■〉을 보고 난 직후의 느낌이다. 지난해 경기도무용단은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정려와 경계를 허물었다'고 표현했다.

예술 공연이나 영화 포스터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개 문구 이기에 그다지 새롭지도, 낯설지도 않았다. 하지만 웬걸,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는 듯 파격적인 공연이었다. 〈본〉은 혜원 신윤복의 '무녀신무', 단원 김홍도의 '무동도'를 무용과 접목한 작품이다. 1부 '제■'·그리는 춤은 무용가 노정식이, 2부 '흥■'·



들리는 춤은 현대무용단 고블린파티가 맡았다. 어떤 무대가 꾸러질지 도통 상상이 안 가는 조합이라서 어쨌든 호불호가 있는 작품이겠거니 했다. 먼저 1부에선 '백의민족' 단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한다. 무용수들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는 듯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

각도와 속도에 무던 춤꾼이 얼마나 있겠나마는 유독 그 부분을 철저히 신경 쓴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조명, 스크린 뒤로 화려하게 뿜어가는 미디어아트 가 무대 전체를 짙게 채우면서도 꼼꼼히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신윤복의 '무녀신무' 속 한 여인이 무언가를 비는 듯한 모습처럼, 무용수들은 절실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

까지 계속 춤을 췄다. 어쨌든 한*이 서린 움직임일 테다. 이때 출연하는 소리꾼 고영열이 한술 보태며 '홀리가는 세월에 나는 홀로 선 채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차절한 소망을 전하는데, '본'의 개념을 탐색하고 고뇌할 수 있는 흥미로운 파트였다. 한비탕 의식이 끝나면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고 멈춘다. 변화무쌍하면서도 일사불란한 군무를 통해 관객도 무용수와 함께 호흡했다. 특히 머리를 끈게 빚어 묶었던 여성 무용수들이 한순간 머리를 풀고 재의에 동참하는 산나기 벌어지는 '굿판'을 보며 강렬함을 느꼈다. 1부는 온통 미장센으로 가득했다. 뒤이어 펼쳐지는 2부에선 분위기가 반전된다. 잠깐 바뀌는 수준을 넘어 아예 백발십도 변한다. 슬픔과 고통이 짙어질수록 잠재된 흥이 살아난다는 사뭇시시처럼 곳곳에 흩어졌던





우리네 흥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양새였다. 어떤 경기극 단 배우 강성해, 육세진과 함께 특별 출연한 '뮤지컬 디바' 배우 홍지민의 목소리와 몸짓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는 무대 위 뿌려진 꽃 기루를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집어 들고, 이 빗자루가 이내 무용수들의 춤 도구가 된다. 이 빗자루는 관객과 무용수 사이에 세워져 때로는 시선을 통제하는 대상이 되고, 쥐도 세도 모르게 사라져 때로는 삶을 지탱하

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정대를 이용해 사울놀이 리듬에 맞춰 무대를 쿵쿵 칠 때 관객들의 어깨도 '백자나 청청 난다'며 들썩였다. 김홍도의 풍속화 '무동도'에선 여섯 악사와 춤추는 소년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를 풍자와 해학으로 선보인 것이 〈본〉의 2부 시간이다. 무대에는 팬라, 명상 주발, 비라 등 다양한 금속 악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뜻한다. 차가운 악기에서 따뜻한 소리가 나온다는 메시지처럼 힘든 삶 속에서도 흥을 잃지 말자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고 불린피티가 안무를 맡았다더니 '역시'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본〉에서는 우리네 전통 춤의 깊은 정서와 현대무용의 대중성이 불편하지 않게 컬래버레이션됐다. 그래서 호냐, 불호냐, 판단은 관객 개개인에게 맡긴다. 화선지가 색종이로 바뀐 신선함이 좋았다면 호, 하나의 색깔만 보고 싶었다면 불호일 수 있다. 다만 한 번 본다고 해서 두고 두고 후회가 될 작품은 아니다. 이상 〈본〉이었다.



글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 할 일은 학도 눈치도 살피는 소시민. 행망하게 살고 싶은 보통 사람.

STORY

City

Welcome to the Metaverse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플랫폼

Structure

에이드리언 청 & K11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쇼핑몰

Monthly Decent

4명의 도슨트가 전하는 이달의 문화예술 소식,

그리고 당신에게 추천하는 작품

Taste of Others

경기아트센터 단원과 아티스트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콘텐츠

Artist Talk

천상의 하모니가 전하는 위로와 위안

데뷔 20년 차 보컬 그룹 노을을 만나다.



WELCOME TO THE METAVERSE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NFT까지 가장 첨예한 신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한다.

ZEPETO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다. 한국에서 만든,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세계관인 셀, 네이버가 '제페토'를 선보인 건 2018년이다.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3D 기술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유저들과 소통하거나 다양한 가상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선 주로 10대를 대상으로 제페토 붐이 불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2억 5000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기업과 브랜드가 홍보 채널로 제페토를 적극 활용하

며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인 SM, YG, JYP 등이 제페토를 통해 다양한 K-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MCM 등 유명 패션 브랜드의 아이템을 구매해 아바타에 적용하거나 다양한 브랜드 체험관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YWORLD

사실 대한민국 30~40대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플랫폼을 주축집은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지닌 가상현실 세계의 초석이었다. 자신만의 공간(미니홈피)을 창출하고, 아바타(캐릭터)를 꾸미며, BGM이나 아이템을 가상 화폐인 도토리로 구매하는 경험을 이미 십수 년 전에 한 것이다. 기술 발전이나 세계관의 확장에 실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싸이월드가 레트로 붐과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재탄생했다. 여전히 SNS 기반의 채널로 운영하지만 핵심은 메타버스. 추억 속 미니홈피는 3D로 구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 컴퓨터'와 손잡고 싸이월드 한컴타운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NFT(Mo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이용한 자신만의 미니미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몰든 유저는 물론 MZ세대까지 미니홈피로 불러올 전망이다.



IFLAND

2021년 연말은 아쉬웠다. 한 해의 파란표를 장식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에 따라 취소된 것. 물론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대체하긴 했지만 현장감이 생략된 연말 행사는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신기술 흥인다는 일한 유저들은 SK텔레콤이 구축한 가상 플랫폼 '이프랜드'에 모였다. 플랫폼에 구축한 가상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는 물론 새해맞이 정동진 해돋이까지 선보인 것. 이날 이프랜드 메타 타종 행사에는 정재승 교수의 강의를 비롯해 가수 이영지의 특별 공연까지 이어지며 현장감을 높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프랜드는 플랫폼에 구축한 특정 가상 공간을 '랜드'라고 규정한다. 랜드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으로 완성한 아바타 간 토의나 발표, 강의, 공연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DECENTRALAND

최근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매장을 개점했다. ‘삼성 837X’라는 이름의 이 매장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837’을 가상 세계에 옮겨놓은 것으로, 공연장과 음악홀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삼성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가상 자산 투자 회사 토큰스닷컴도 약 28억 원을 들여 디센트럴랜드에 디지털 상가를 구매했다. 이처럼 디센트럴랜드는 탐색과 생성, 게임 플레이, 웨어러블 수집, 창작물 수익화, 토지 플롯, 3D 건축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총체적 가상 세계다. 이용자가 직접 땅을 사고팔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역시 유저가 챙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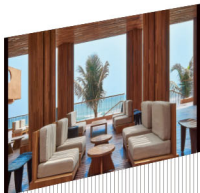
ROBLOX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한 복음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게임이다.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설계하고 다른 유저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마치 레고처럼 블록으로 구성된 3D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유저들이 소통하며 미국 10대들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미국 청소년의 약 55퍼센트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로블록스는 누적 이용 시간 약 306억 시간, 월간 활성 이용자^{MAU} 1억 5000만 명, 하루 접속 유저 40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로블록스가 여는 플랫폼과 다른 지점은 ‘로블록스’라는 가상 화폐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상위 300여 명은 연간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경제활동 가능성도 증명했다는 평가다.



SANDBOX

'샌드박스'는 NFT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탈중앙화 시스템에 집중한다. 재단하기 힘든 광범위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게임 내에서의 자유도는 거의 100퍼센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부동산이나 아이템, 에셋 등을 샌드박스 코인이 나 이더리움 코인 등을 활용해 사고파는 시장경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샌드박스 속 랜드는 가격이 맞춘 퍼센트씩 증가한 상태다. 몇만 개의 랜스에서 몇만 명의 유저가 구축한 게임을 즐기며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첨예한 세계의 변화를 겪어보고 싶다면 샌드박스가 답이다.



SECONDLIFE

인터넷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세컨드라이프'라는 단어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2006년 미국에서 정식 오픈한 이 사이트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약 23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요새처럼 워 단위 유저가 입에 오르내리는 세상에서 그다지 큰 수는 아니지만, 놀라운 건 이 중 약 6만 명이 유료 이용자로 월 6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유저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현실 속 사람들이 가상 세계를 얼마나 동경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세컨드라이프의 흥행은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에게도 큰 영감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세컨드라이프를 개발한 필립 로즈 데일은 최근 '메타버스 세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그러나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무조건 온다"라고 덧붙였다. 세컨드라이프는 초창기 메타버스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됐는지 체험하기 좋은 플랫폼이다.



에이드리언 청 & K11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쇼핑몰

홍콩의 빈값 아파트, 상하이와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 K11,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가 있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 정답이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 원을 넘었고, 좀 괜찮다 싶은 주택가의 20평대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50억 원에 달한다. 여러 이유가 얹혀 있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홍콩 정부가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공공 토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했고, 시간이 흐르며 자금이 풍부한 몇몇 기업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해버린 것이다. 집값이 오를수록 기업은 배가 부르니 기업으로서서는 그들이 소유한 땅에 집을 더 지을 이유가 없다. 홍콩 정부가 기업들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런 와중에 홍콩 시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의 민간 건설사 뉴월드가 그들이 소유한 땅을 기부하고 빈값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홍콩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지어 팔았기 때문

에이드리언 청은 현대미술을 후원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각 도시마다 K11을 만들고 있다. K11은 예술, 자연, 사람이 트라이앵글로 교집합 되는 문화적 생태계를 꿈꾼다.

에 민간 건설사로서는 최초의 시도다. 뉴월드는 그룹은 소유한 토지 중 18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9만 7,520㎡(9만 평) 규모의 토지를 홍콩 정부와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중 10분의 1은 사회단체 라이트비(Light Bn)에 기부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홍콩 정부에서 밝힌 기부 토지의 가치는 5,700억 원에 달한다.

도시 주거 문제에 발벗고 나선 민간 기업

뉴월드는 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내 예비영리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공사비 전액을 민간 자금으로 충당하고 홍콩 아파트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 분양가는 방 1~3개 기준으로 4억 5,000만~7억 5,000만 원가량이다. 이 금액은



오로지 건설 비용으로 사용하고 추가 이익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뉴월드 그룹의 입장이다. 실제로 거주할 젊은 층을 위한 대출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웠다. 계약금을 주면 가격의 5퍼센트로 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두 단계에 거쳐 진행한다.

홍콩 정부와 노조에 처음에는 필요한 금액의 절반가량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여러 번 나눠 대출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었다. 빚을 갚으며 저축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한 것이다. 비영리 사회 주택에 관한 정책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시도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름 되면, 뉴월드 그룹의 정체가 궁금할 것이다. 뉴월드 그룹의 최고경영자는 에이드리언 청(Adrian Ching)이다. 그는 토지 기부와 반값 아파트 계획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홍콩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에게 보답하고 도시의 생계 문제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뉴월드 그룹의 전신은 청위풍(陳維豐)이 1970년에 설립한 뉴월드 디벨롭먼트(新地發展)다. 홍콩과 중국 본토에 호텔과 쇼핑몰을 소유한 부동산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홍콩 컨벤션센터도 1984년에 NWD가 설립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경영에 참여했다 낙제점을 받고 물러났다. 청위풍의 관심은 장손 에이드리언 청에게 향했다. 1980년 태어난 에이드리언 청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교토와 미국에서 3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인재였다. 2007년에 귀국한 에이드리언 청은 28세에 부사장직을 맡으며 복합 이트 쇼핑몰 K11¹⁾을 선보였고,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16년, 창업자 청위풍이 세상을 떠나고 에이드리언 청은 뉴월드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확장해온 과거 세대와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기업은 대중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인지 알아채고 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드리언 청은 토지 기부와 반값 아파트를 통해 뉴월드 그룹의 새로운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둘째는 디자인과 아트를 중심에 두고 알찬 콘텐츠를 담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다. 텅 빈 건축물을 짓고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호텔을 짓거나 쇼핑몰을 짓기 명확한 콘텐츠를 반영한다. 홍콩과 중국 각 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K11역시 모두 저마다 콘셉트를 갖추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쇼핑몰’이라 불리는 K11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미술 쇼핑하러 백화점 가는 시대, 상하이 K11은 다르다!

몇 년 전, 상하이 출장지에서 K11 아트 물음 취재한 적이 있다. 데이미언 하츠트의 조각 작품에서 한국 신인 작가의 작

1 상하이 K11 아트 물음: 건축물 중심에 인간 욕구를 조형화한 공간 속 정교하게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 K11 in China라는 이름의 등 K11의 설립 철학과 그간의 전시, 인공예비작가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3 데이미언 하츠트의 조각 작품 ‘Wretched War’.



품까지 아트 물 각 층의 성격에 맞게 작품이 세심하게 놓여 있었다. 쇼핑하면서 출근 보고 자나할 수 있지만, 잘 정리된 작품 설명서와 QR코드로 연결되는 동영상도 있어 면밀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상하이 K11 아트 물 지하에는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이 있는데, 당시 살바도르 달리를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에이드리언 청은 전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Media-Dial)전은 ‘달리가 남긴 유산’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 재단에서



K11 MUSEUM

작품을 빌려왔고 중국 작가 8인과 함께 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거장의 작품이라 해도 과거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달리의 작품이 현대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의 시간과 현재는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준다.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다.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 연극 무대, 제품 디자인까지 살바도르 달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다.* 미술 작품이 높은 소품물이나 백화점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백화점에 미술품 소품을 하러 가는 시대가 아닌가. 자체 갤러리를 둔 백화점은 많지만, 그들과 K11이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K11은 작가를 후원하는 비영리 조직인 'K11 아트 파운데이션'¹⁰⁾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는 대부분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업 갤러리다. 요즘 컬렉터가 선호할 만한 작품을 개인전 형태로 꾸미고 작품을 판매한다. 쇼핑을 하러 가는 장소이니만큼 이는 당연한 선택이다. 반면 K11은 시대상을 반영한 미술관 전시를 진행한다. KAF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KAF는 비영리 재단으로 젊은 작가와 큐레이터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에이드리언 청은 미술관과 비엔날레 등의 국제 무대에 여러 작가를 선보이고, 세계 도시를 거점 삼아 소품물과 결합한 미술관을 만든다.

10년, 100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한 홍콩 K11 MUSEA

2019년 여름, 침사추이에 문을 연 K11 뮤지엄 K11 MUSEA는 에이드리언 청의 K11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근작으로 전 세계 100여 명의 디자이너, 예술가, 환경운동가가 참여해 10년간 일군 결과물이다. 롯폰기 힐스, 런던 아마존 사옥을 설계한 KPF의 건축가 포스 베이글러, 뉴욕 하이라인 공원 심기포터 참여 공방을 설계한 JCFO의 조경가 제임스 코너,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OMA의 헬 콜름스 등이 크리에이터 그룹의 대표 인물이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35m 높이

1 K11 아트 파운데이션의 컬렉션이 위치한 상하이 K11 아트 몰
2 뉴욕도 그랜드 회고 경장지 에이드리언 청
3 홍콩 K11 무재: 1800여 개 이상의 조각이 한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방문객의 영감을 높인다.

INTERVIEW

몇 천 점 상하이에서 에이드리언 청을 직접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주고받은 문답이 현재 그의 행보를 더욱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적는다.

K11 아트 파운데이션¹⁰⁾에 대해 설명해달라. KAF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현대미술 작품을 컬렉션하고, 현대미술 작가를 키우는 일이다. 홍콩과 중국, 아시아의 젊은 작가와 큐레이터를 대중에게 알리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한국 작가 중에서는 정연호, 한성일 등의 작품을 컬렉션했다. 중국에는 전 세계 작가가 간헐하게 연결되어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현대미술 작가를 키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블랙 드 도르'와 3년간 계약을 체결해 컬레바레이션 전시를 진행하는 일이다. 첫해에는 창란¹¹⁾이라는 비디오 아티스트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프랑스 작가와 컬레바레이션을 진행해 (Joos)라는 작품을 제작했고, (Always I Trust)라는 뮤직 퍼포먼스도 열었다. KAF에서 작가를 후원하는 의미에서 아스트랄과 비엔날레에 출품했다. 아트 비탈 홍콩에서는 '9 Hours'를 주제로 쇼를 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가가 성장하는 데 세계적 규모의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런던 ICA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K11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브루스 리의 영화 (운장호투¹²⁾ Fine The Dragon)를 오미주한 퍼포먼스다. 미로와 같은 거울방에서 펼쳐진 영화의 마지막 결투 장면을 세트를 해석했다. 중국 작가 장딩¹³⁾ Wang Ding이 프로젝트로 일렉트로닉, 재즈를 26개의 런던 언더그라운드 밴드를 모았다. 영화에선 2명의 피아티가 싸웠지만, 이번엔 두 밴드가 대결하듯 연주했다. 매일 밤 두 밴드가 13일 동안 진행했는데,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보러와 대중공연을 봤다. 우리의 퍼포먼스는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 NT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현대미술을 후원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두 부분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점이 매우 영리해 보인다. 미치지 않는 성취향 관련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테니까, 아직까지 현대미술을 즐기는 이는 많지 않지만, 쇼핑은 모든 이가 좋아한다. 쇼핑물은 그 어느 곳보다 '하이 트래픽' 공간이고, 통상여 작품이 노출되기도 좋은 공간이다. 일부러 시간을 내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누구나 수준 높은 작품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하이 K11아트 몰에는 'K11 in China'라는 이름의 방이 있다. 중국 각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건축 모형이 놓여 있는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중국의 11개 도시에 아트 몰, 사무실, 숙박, 주거 기능을 담은 K11이 들어선다. 베이징 K11에는 쇼핑을 없이 미술관만 오곤하라고 하고, 광저우 K11 10는 숙박과 사무 기능을 결합하라고 하는 등 도시마다 전략이 다르다. 각 도시에 위치한 K11이 예술과 자연, 사람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꿈꾼다.







의 웅장한 '오페라 시아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건물을 환히 비추고, 아트리움 중앙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마치 공성과학원화 속 한 정면처럼 고도로 발달된 미래의 어느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들 것이다. 층고가 높은 중앙 홀을 따라 펼쳐진 곡선형 장식과 1800개가 넘는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인증샷 명소로 인기가 높다. 호텔과 쇼핑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마MOMA 디자인 스토어,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고 약 4628㎡(1400평)이 넘는 동식물원과 원형극장, 7m 높이의 LED 스크린 등 편의시설도 인상적이다. K11 무제아에서 밖으로 나서면 홍콩

110㎡에 걸쳐 완성된 K11 무제아
2 K11 무제아 6층에 위치한 아트 & 컬처 센터
휴식 공간이자 예술 놀이장과 같은 곳으로 구사미아로이, 파울리 피비 등의 작품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야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스타의 거리'가 이어진다. 이 거리는 K11 개관과 함께 리노베이션한 수변 산책길로, 한국인 조경가 HLD의 안동혁 소장이 설계를 주도했다. 과거 스타의 거리에는 그늘이 전혀 없어 경치를 즐기지 못하고 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그늘과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조개에서 영감을 받은 휴게 공간을 디자인했다.

글 김민아 |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건축도시디자인을 공부했고 아트와 건축 디자인 분야를 취재하며 글을 쓰고 있다. <J매거진>, <에라>지 유안, 월간 디자인에서 피치 기사를 알렸다. 현재는 디자인트레스 편집장으로 온라인 디자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GGAC
레퍼토리시즌
2022

지휘 마시모 자비티
소프라노 박하나 이영혜 박누리 메조소프라노 김광미 테너 강현철 베이스 박진환 베이스 손혜수 이노영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관람인형 만7세 이상 (초등학생 이상) 예매 1544-2344 문의 031-230-3321 www.ggac.or.kr

경기필하모닉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022. 3.3목 / 3.5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GGAC
경기필하모닉콘서트
ORCHESTRAL PRESENTATION CONCERTS

GGAC 경기아트센터
ORCHESTRAL PRESENTATION

경기도

MONTHLY DOCENT

4명의 도슨트가 전하는 이달의 문화예술 소식, 그리고 당신에게 추천하는 작품.

음악이 흐르는 순간, 이야기도 흐른다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휴일, 모처럼 마음먹고 영화를 보러 간다. 실례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하기를 기다린다. 배우들이 등장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대사를 읊는 배우의 목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 배경음악도, 효과음도 없다. 주인공이 첫사랑 연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장면인데, 스크린에는 정적만이 흐른다. 과연 이 영화

가 들려주려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와닿을까? 사실 인간이란 본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동화나 우화를 비롯해 어른들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커서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어디에 갔는데 말이야” 등으로 시작되는 나와 남의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며 시간을 보낸다. 이야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시작과 끝이 있고,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이야기다. 이야기에 음악이 적절하게 합쳐지면 서

로가 빛난다. 영화 속 한 장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음악이 쓰였을 때, 마치 이 음악이 이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꼈을 때 관객에게 전해지는 감동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다. 특정 영화를 떠올리면 그중 한 장면에 삽입된 음악이 귀에 자동 재생되기도 하고, 특정 OST를 떠올리면 그에 맞는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영화는 끝나도 음악은 남아 있다> (고형욱 저, 사월의책에서 자자는 이렇게 말한다. “눈을 감고 한 편의 영화음악을 듣다 보면, 참으로 오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느낀다.”) 감동적인 영화음악은 시공간을 가슬

음악에 서사를 부여한다.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음악은 단순한 흥 종이 위 검은 음표의 집합이 아니라, 만든 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내놓은 결과물이다.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한 곡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 작곡가의 삶을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곡가가 이미 세상에 없어서 궁금한 것이 생겨도 물을 수 없으니 그사람 자체를 이해해볼 수밖에.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9번을 예로 들어보자. 흔히 ‘운명 교향곡’으로 불린다. 베토벤은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던 시기에



이 곡을 썼다. 쿼에 이상이 생겼고, 애인과 파국을 맞은 데다 당시 활동하던 오스트리아가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는 등 시련이 겹쳐 찾아왔다. 이 사실을 알고 음악을 다시 들으면 1악장에서 거대한 운명을 맞닥뜨린 이의 고뇌가 드러나 3·4악장에 걸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환희가 느껴진다. 음악 분야 최초로 롤리치

상비품 부문을 수상한 손버그의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해럴드 C. 손버그 저, 클처럼 작곡가에게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을 읽고 나면 같은 음악도 다르게 들린다. 특히 피란민장한 삶의 굴곡을 겪은 슈만의 음악을 들어볼 생각이 있다. 먼, 그의 전기 (슈만 평전)이성일 저, 풍월당)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음악이 흐르는 곳

에 이야기기도 흐른다. 오늘 내 삶이 디스 맛있게 느껴졌다면,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맛깔을 내보는 건 어떨지. 영화 같은 장면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글 최한나 출판사에서인문, 사회, 과학 분야와 책을 만드는 편집자다. 글에서 공감을 보려 다는 취미에 깊이 빠져 있으며, '취미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분투 중이다.

자전적 이야기로 써 내려간 두 장의 음반

E Sens <The Anecdote>

이센스의 'Next Level' 가사를 꼭 따라가다 보면 그가 어떻게 한 계단, 한 계단,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열일곱 나이에 첫 대화에 참가해 우송, 그리고는 대구에 있는 클럽 '해비' 무대에 선 뒤 상경해 온갖 일을 하다가 싸이먼 도미닉(썸디과 함께한 첫 단독 공연에 관객 1200명이 몰렸다는 이야기가 파노라

마처럼 펼쳐진다. 이센스가 발표한 첫 앨범 (The Anecdote) 커버에는 KMH라는 알파벳만 적혀 있다. 이센스의 본명인 강민호를 뜻하는 영문 아니실이다. 음반 커버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순수건이었다. 땀과 눈물을 닦는 손수건을 내세워 이센스의 인생을 담은 것이다. (The Anecdote)라는 앨범 제목부터 '일화, 개인적인 진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의 '민호'부터 음악을 시작한 뒤 '이센스'의 모습까지가 차곡차곡 앨범 안에 담겨 있다.

앨범은 나옴자마자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앨범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유행이 자났다고 얘기해온, 이른바 '볼륨' 'Boom Boom' 사운드를 전면에 내걸고 단순하고 미니멀한 비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다른 래퍼들이 모두 '스웨그'를 앞세워 무었든 자랑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를 낼 때 이센스는 고향 경산에 내려가 어릴 적 걸던 길을 다시 걸어보고, 다니던 학교에 가보고, 스무 살 무렵의 강민호를 기억하려 했다. 그 과정을 통해 (The Anecdote)는 클래식이 되었고, 우리는 한 장의 앨범을 넘어 음악인 강민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조동익 (푸른 베게)

26년이라는 숫자를 쓰는 데는 1초라는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사실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동익은 '어떤 날' 이후 1994년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앨

범 (동경)을 발표한 이후 침묵했다. 물론 조동진, 장필순 등 가족이자 동료인 음악가들의 앨범을 만들어왔지만 자신의 음악에는 유독 인색했다. 그렇게 훌쩍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20년이 되어서야 2집 (푸른 베게)를 공개했다. (동경)도 자전적 성격의 앨범이었다. '동경', '엄마와 성담에', '노란 대문(정릉 배밭길)'으로 이어지는 유년 3부작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 아득하고 이련하고 아름답게 담겨 있었다. (푸른 베게)는 그 뒤의 이야기다. 그동안 침묵의 시간을 음악에 담았다. 어린 시절 정릉의 노란 대문 집에 살던 그는 지금 제주의 노란 대문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런 변화와 지금의 삶이 (푸른 베게) 안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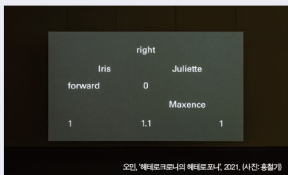
세상을 떠난 형과 형수를 그리는 'Farewell, Jd, Knh(1972)'와 (동경) 속 경윤이를 위한 노래의 주인공에서 어느새 엄마가 된 딸 경윤과 손녀에게 바치는 'Song for chella', "절음은 아름다운 것"이라 노래하는 "그래서 절음은"은 그 긴 시간 속 조동익의 이야기다. 앨범 안에는 여섯 곡의 연주곡이 담겨 있지만 이를 자전적 이야기라 해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 이제 그의 삶에서 필수 요소는 제주의 바람과 풍경이 곁잡한 사운드스케이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버릴 아난 날'을 잃었다고 노래할 때 그 침묵의 세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글 김학선 2000년 안락사 음악 방송곡 '뽕' 7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EBS <스페이스 공감>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겨레 대음악' 한겨레 대음악의 객원 진행 7자로 알렸고, '한국대음악' 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 여기, 않지만 다른 시간 속에서

한 인물이 세 화면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움직인다. 네 번째 화면에서는 그를 찍는 카메라가 보인다. 반대편에는 숫자와 단어가 깜빡이는 화면이 하나 더 있다. 앓을 곳도, 바라보는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객은 소리 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게 된다. 주로 3채널 비디오의 인물과 부산스러운 소음이 나는 카메라 촬영 화면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2021〉전 중 오민 작가의 〈테테로크로니의 헤테로포니〉(2021)다.

시공간은 우리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미셀 푸코는 공통적 이상인 '유토피아'와 달리, 사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섞이거나 겹쳐 그들 간 위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장소를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고 했다. 인식하는 이에 따라 현실일 수도, 유토피아일 수도 있으며, 또 양립 불가능한 공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것의 시간 개념이 '헤테로크로니(heterochrony)'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시간이 동시에 존재 가능한, 전통적 개념을 벗어난 시간이다. 이는 같은 시공간에서도 복잡하게 얽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대 문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작가는 "관객들이 어떤 시간을 겪고, 어떤 공간을 경험하기로 '결정'할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한편, 숫자와 단어는 퍼포먼스 중 벌어질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작가는 촬영이나 연출자의 머릿속에는 늘 상황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항상 과거와 연결된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졌다. 그래서 그는 작품에 '영상' 대신 '시간 기반 설치'라는 용어를 쓰고 이미지, 소리, 빛, 공간, 수행, 몸, 말, 사유, 즉흥 등을 흐르는 시간 위에 어떤 관계로 배열할지 고민한다. 그 관계 속에 진입한 관객



도 재료 중 하나다. 관객은 영상이나 소리에 인자의 속도를 맞추고 각자 부지런히 움직이고 생각한다. 여기서 '헤테로포니(heterophony)'가 발생한다. '모노포니(monophony)', '폴리포니(polyphony)' 등과 함께 음악에서 선율을 조직하는 방법의 하나인 헤테로포니는, 같은 선율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것이다. 연주하는 물의 성질이나 고유의 결정에 따라 이질감과 동질감이 계속 발생하며, 서구 음악보다 동아시아 전통음악에서 주로 보이는 양상일 방식이다. 작가는 헤테로크로니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의 복잡성과 동시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이 헤테로포니 개념을 도입했다. 전시장에 흐르는 시간 위에 화면 속 인물과 카메라 워크, 미리 계획된 과거의 지시어가 배열되어 있다. 같은 조건 아래 관객은 각자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움직인다. 발걸음의 리듬과 시선의 높낮이 속에 각자 의시간이 흐른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선율이다. 서로 마주치며 교차할 때 이 순간의 헤테로크로니가 직조된다. 책 〈음악의 언어〉(송은혜 저, 시간



오민, <테테로크로니의 헤테로포니>, 2021, <사진: 송철기>

의 흐름에서는 앙상블을 관례에 비유하며 '타인은 또 다른 음악'이라고 했다.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부딪혀 깨질 때 마음을 열면 무한히 확장하는 세계를 맞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와 같은 세상 안에서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타인의 선율이 공명해줄 즈음, 화면 속 인물이 흥얼

거리는 소리가 같은 듯 다른 듯 겹쳐 들리며 관객의 시간 사이로 스며든다. 화면 안팎의 인물이 한데 모여 이루어지는 헤테로포닉사 순간이다.

글 김지연 예술과 문학에 대해 글을 쓴다. 저서로 〈마라노는〉, 〈오동네 감방〉이 있으며, 국제 전문 월간 시사지 〈로동 디플로마티크〉와 웹 매거진 〈3세대 마라노〉에 기고하고 있다.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경배를!

음악영화와 영화음악은 사뭇 다르다. 영화음악의 최고봉은, 물론 엔니오 모리코네다. 1928년 생인 그가 2020년 사망하기까지 수많은 곡을 남겼다. 누군가 그의 대표곡 세 곡을 꼽으라고 한다면 1순위가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만든 1988년 작 〈시네마 천국〉일 것이다. 그다음에 세르조 레오네가 1984년에 만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그리고 다음 정도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1966년 작 〈석양의 무법자〉인데 근래에는 〈더 굿, 더 배드 앤드 더 더글〉로 더 달라져 있는바, 그런 조전하 김지연 감독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때문이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몰라도, 혹은 〈시네마 천국〉은 몰라도, 그 영화음악이 주는 선율을 안 들 어본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은 클라리넷이나 오보에 같

은 목관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 플랑 조제파 미넨 (미넨) 속 음악이 가히 압도적이다. 아름답고 세련된 모니카 벨루치 주연의 영화 〈말레니〉는 모리코네의 음악으로 더욱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됐다. 비록 걸작은 아니어도 모리코네의 음악 덕분에 그 반열에 가까워진 영화가 많다. 수많은 영화음악가가 있지만 아직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성을 따라갈 인물은 많지 않다. 독일의 한스 치마니 미국의 존 윌리엄스, 일본의 류이치 사카모토 모두 내로라하는 인물이다. 모두 자기만



의 음악에 걸맞은 영화가 있는데, 존 윌리엄스는 〈스타워즈나〉 (슈퍼맨) 같은 SF 블록버스터 작품이 맞는 음악이다. 그래서 그의 음악도 굉장하 귀에 익다. 드니 빌뇌브의 최신작 〈듄〉 역시 장중하면서 신비한 분위기의 OST로 평판을 더 높인 셈이 됐다. 한스 치마의 음악을 썼기 때문이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화음악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림에도 〈히치콕 황제〉로 골든 글로브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경력 때문에 종종 영화계에 소환된다. 아예 〈코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까지 있다. 〈코다〉는 피아니스트

로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을 기록한 영화다. 음악영화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장르이자 작품이다. 음악이나 음악가, 연주가가 완전히 주인공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소개하는 작품이 그렇다. 지난 10여 년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음악영화는 〈서칭 포 슈가맨〉일 것이다. 평생 노동자로, 그리고 우람 가수로 살아온 사isto 로드리게스의 일생과 음악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비롯해 수많은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다. 감독 말리크 벨라델로우는 그 명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국 자신을 택했지만, 가수 사isto 로드리게스의 음반은 아직도 팔라지고 있다. 데이미언 셔젤의 '불링블링' 영화 〈리라랜드〉도 영화음악 덕분에 인기를 모은 것이 아니고 음악영화 또는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주목받은 작품이다. 곧 개봉 예정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역시 2022년 최고의 음악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은 한때 영화의 변방이자 부속을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음악은 서사적 중심의 자리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음악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이 '아미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경배를!

글 오동진 영화에 대한 글을 쓴다. 저서로는 〈작은 영화가 좋다: 오동진의 인문극 D와 사상은 학생처럼, 학생은 영화처럼〉 오동진의 인문극을 소개했다.

타인의 취향

아티스트가 추천하는 여유로운 한 편.



〈렛 them 올 토크〉(Let Them All Talk)(2022)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렛 them 올 토크〉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인기 소설 작가 엘리스 휴즈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메릴 스트리프를 비롯한 베테랑 출연진

이 펼쳐는 명품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본 영화 중 여전히 제 인생작은 〈피키 블라인더스〉와 〈위쳐〉, 〈번지의 제왕〉 등 이 영화와는 전혀 다른 취향의 작품들이나 평가 색다르게 마음에 와닿은, 제게는 너무 아름다웠던 영화입니다. _ 오재권 연출가 장서문



〈모던 패밀리〉(Modern Family)(2009-2020)

드라마 〈모던 패밀리〉 시리즈는 미국 ABC에서 방영된 시트콤 형태의 드라마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가족의 이야기여서 우리에게는 낯선 부분도 많지만, 11개 시즌을 아우르는 큰 주제가 가족 간 사랑인 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퇴근 후 집에서 몇 시간짜리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 편당 20분 정도여서 부담이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에피소드여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볼 수 있어요. 또 이 시리즈는 12년에 걸쳐 찍은 만큼 성인 배우들이 나이 들어가고, 아역 배우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모든 캐릭터가 사랑스러워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일부 시즌을, 디즈니+에서 전 시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_ 경영지원팀 김학진 주임

〈오징어 게임〉(2021)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추천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 사람에 따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오징어 게임〉이 반영하려고 하는 우리 현실 속 문제들이 그만큼 잔인한 모습에 아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미술과 음악도 훌륭하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_ 노을 강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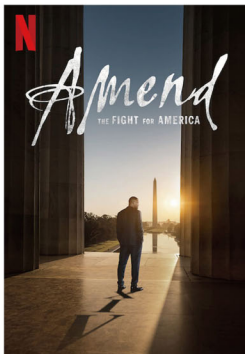


〈밀리언 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

(2005)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탄탄한 영화 한 편은 관객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전합니다. 그중 '영작'이라 불리는 작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특히 오래 남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강렬한 메시지에 더해, 이스트우드 감독 특유의 절제된 연출은 과도한 자극 없이도 충분한 울림을 줍니다. 어느새 관객은 영화에 온 감정을 몰입하게 하죠. 아직 못 본 분들은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도 꽤 오랫동안 자리를 뜨기 힘들 거예요.

_ 뉴미디어심 한빈 주임



〈어멘드: 미국을 위한 투쟁〉(Amend: The Fight for America)

(2021)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어멘드: 미국을 위한 투쟁〉을 추천합니다. 배우 윌 스미스가 출연해 이목을 끌기도 한 다큐멘터리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들이 평등을 위해 싸워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들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콘텐츠입니다. _ 노을 나성호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2022 노을 연말 투어 콘서트 〈노을이 내린 밤〉

천상의 하모니가 전하는 위로와 위안

데뷔 20년 차 보컬 그룹 노을이 팬데믹으로 지친 관객에게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



연말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전 팬들과 콘서트에서 만났습니다. 3년만의 콘서트라 더욱 특별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㉔ 오랜만에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만나 정말 반가웠어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얼굴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소통하고 느껴라고 했습니다.

^㉕ 항상 하던 공연이지만, 특히 이번엔 서로 오래 기다려서인지 뭔가 몽글몽글함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연이었어요. 콘서트를 찾아주신 관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요.

^㉖ 비록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항상 지르는 것도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공연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기쁨과 감동이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 끝나고 SNS에 올려주시는 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㉗ 데뷔 이후 군 입대, 소속사 이적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런 이유로 오랜 시간 공연을 못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시작했고, 많은 것이 새로웠고, 순간순간 울컥했어요.

군중의 인무나 스모그, 불꽃, 레이저까지 화려한 무대가 주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4명의 보컬리스트가 담당해서 노래하는 콘서트 한장이 빈갑고 신선했습니다. 노을이 지하는 무대는 어떤 것인가요? ^㉘ 치열한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한 시간만 좋은 추억이 되어서 일상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㉙ 어떤 시스템에서 공연하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연을 함께해주시는 관객에게 마음을 다해 보여드리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㉚ 진심을 담은 음악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무대는 그저 저희의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㉛ 공연을 본 한 관객이 이런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공연이었다.” 노을이라는 팀 이름처럼 화려하기보다는 따뜻한 공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무대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데뷔 20년 차 보컬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멤버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㉜ 멤버들과 지향하는 음악의 궤가 같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이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멤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㉝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적 생각과 지향하는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다들 건강할 덕분에인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합니다!

^㉞ 지금까지 만들어온 가수로서의 성과가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멤버들의 도움과 조화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뿐 아니라 멤버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 팀 결성부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멤버 모두가 무던하고, 음악적 방향이 비슷해 별 탈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바로 운이 좋은 거지요.

‘데뷔 때보다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호소력이 깊어졌다’ 같은 평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소리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쌓이는 이야기와 느끼는 감정이 노래에 실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를 생각하고 연습하며 지금도 레슨을 받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 나이가 좀 더 들었는데도 그에 걸맞게 크게 꾸미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려 편안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 저는 제 목소리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소리가 더 깊이 있고 호소력이 깊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지요.

※ 아직 많았지만, 데뷔 때보다 노란해진 것 같기는 해요. 소리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다양해졌다는 말에 가깝지 않을까요. 지난 콘서트 댄 청력이 좋지 않은 팬이 속가사를 대동하고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는 관중도 감동을 받았

는데요, 노을에게도 의미 있는 기억일 것 같아요. 그때를 회상해보면 어떤가요? ※ 청력이 좋지 않은 데도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공연장까지 찾아와주셔서 감격했습니다. 눈빛과 진동으로 소통하며 노래를 부르려고 애썼고,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 늘 그분이 떠오를 것 같아요.

※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울림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 소리를 듣기 어려운데도 음악을 듣기 위해 콘서트를 찾아온다는 건 어떤 것일까, 소리가 아닌 어떤 부분에 감동했을까 등 가수로서 예전에는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 습니다.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청혼’,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에서’, ‘너는 어렸을까’, ‘진부너였다’, ‘하지 못한 말’, ‘문득’까지 히트곡이 무수히 많습니다.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을만의 명곡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별의 시작’과 ‘날개’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은 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부른 노래여서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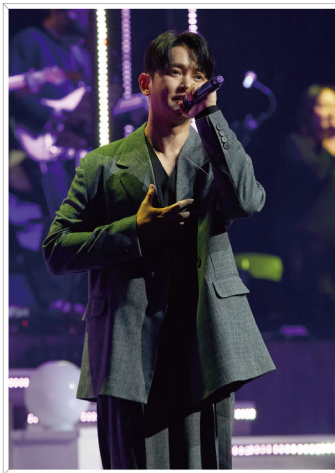
☞ **안녕, 노을이 항상 하던 편곡 스타일과 다른 감성이 묻어나는 곡이에요.**

☞ **‘별의 시작’이라는 곡이 있어요. 지친 누군기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곡입니다. 가사에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 노을의 과거와 현재의 스타일을 모두 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공연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팬들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나요? ☞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으로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아요’도 누르고 대댓글도 남기는데요, 귀한 시간 내 SNS에 방문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 **계약이 많은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그 안에서 먼저 좋은 음악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가 있어 저희가 라이브 콘텐츠를 올리면 팬들이 그걸 보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그렇거나야 소통하며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 **아쉬움은 무엇으로도 달래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새로운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 작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곧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과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이번 공연에는 곡의 편곡과 음향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고의 공연장인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만큼 관객분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이 있는 상황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먼저 좋은 음악으로 소통하려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담은 노래로 관객에게 감동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또 콘서트를 통해 멤버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관객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새로운 곡을 세트리스트에 추가했고, 첫 라이브가 될 텐데 긴장되고 설레요.**

2022 노을 연말 투어 콘서트



노을이 노크하는 내리막

2022.02.12 SAT 2PM 7PM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주최/제작 : (주)네스엔터테인먼트, NHN 티켓링크(주), (주)에이제이맥토리 주관 : 경기아트센터, 공간마루 예매 : 티켓링크, 인터파크 문의 : 1588-7890, 1544-1555

GGAC+

GGAC Now

경기아트센터의 신입 사원을 소개합니다

Any Question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News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

Calendar

2022년 2·3월 주요 공연 일정

Epilogue

(예술과민남)이 독자와 소통하는 방법



GGAC NOW

경기아트센터의 신입 사원을 소개합니다

푸릇푸릇한 생기와 활끓는 에너지로 경기아트센터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신입 사원 6명.



신원우(신원비즈니스개발팀 주임), 허종민(전시개발팀 주임), 김학진(공연지원팀 주임),
노수영(안전지원팀 주임), 송형남(안전지원팀 주임), 서민정(경영지원팀 주임)





신한비 뉴미디어팀 주임, 서한결 경영기획팀 주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한결}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아트센터 뉴미디어팀에서 근무하는 신한비입니다. 나이는 스물아홉 살입니다. 골짜락이긴 하지만,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젊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한결}안녕하세요,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팀 소속 서한결입니다. 나이는 올해 서른한 살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아트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서한결}뉴미디어팀은 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연예술과 뉴미디어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진행하는 일은 여러 우수한 공연의 영상화 사업이나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 발굴 등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 '경기아트ON' 론칭을 앞두고 있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한결}확대간부회의·소통회의 등 내부 회의 운영, 경영 및 종합 공사 관련 업무, ESG 경영 관련 업무, 외부 공문 수발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서한결}저는 대학에서 IT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IT 플랫폼과 서비스 기획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로 진로를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던 도중에 경기아트센터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문득 "공연예술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원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였기 때문에 걱정도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한결}경기도 최고의 공연예술 기관인 만큼 훌륭한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입사 후 경기아트센터의 여러 공연을 열심히 보러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멋진 공연이 무대에 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났습니다. 정직원으로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 텐데, 현재 심경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서한결}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책임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와 팀 그리고 업무에도 많이 적응해서 신입 때보다 수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 딱지도 떼고 어엿한 정직원이 되었으니 맡은 일에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활해나갈 예정입니다!

^{서한결}수습 기간이 끝났으니 정직원으로서 경기아트센터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 실력과 친절함을 겸비하신 선배님들을 보고 배우면서 저도 경기아트센터에 걸맞은 일꾼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선배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한결}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한결}입사 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경기아트센터 선배님들, 특히 우리 경영기획팀 팀원들이 몸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선배님으로 만나게 되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경기아트센터의 ㅇㅇㅇㅇㅇ이 되고 싶다'의 빈칸을 채우다면? ^{서한결}저는 경기아트센터의 '알리아티티'가 되고 싶어요. 미디어 시장은 양이 방대한 만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연예술계와 경기아트센터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고요,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서한결}경기아트센터의 창문이 되고 싶다! 확대간부회의·소통회의 등 내부 회의의 운영에는 만큼 경기아트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바램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경기아트센터에 새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문이 되겠습니다.

송형남, 양준 안전시설팀 주임

저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올해 서른다섯 살이 된 송형남입니다.

안전시설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안전시설팀 양준입니다. 나이는 서른네 살입니다.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카페 다니다기를 좋아합니다. 소소한 취미를 즐깁니다.

현재 경기아트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 전산,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통신, CCTV 유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가 제 일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의 수습 기간은 어땠나요? 개인적인 소회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등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 정신없이 업무를 배우느라 수습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개관 30주년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며 저도 다음 행사에는 꼭 중요한 역할로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 입사 첫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임용식을 하는 줄 몰랐는데 각 부서장께서 빙 둘러 모여 계셔서 당황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제가 한계가 비뚤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좋은 점은 선배님은 물론 팀원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동기도 돌아나 갔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아트센터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경기도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경기아트센터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메가트렌드인 문화예술과 함께 개인적 성장도 이루고자 지원했습니다.

※※ 대학 시절 친한 동기들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관람했는데 공연장이 굉장히 예뻐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장에 갈탄하면서 친구들과 '이런 공연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야기했죠. 그 사소한 이야기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역할을 했고, 좋은 흐름이 이어져 경기아트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첫 느낌은 어땠나요?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라서 보수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임직원 모두 밝고 열정적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났습니다. 조직원으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 텐데, 현재 심경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 더욱 책임감 있게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일이 점점 강화돼 업무 면에서 새로이 만들고 대응해야 할 것이 많아 고민입니다. 나중을 위

해 지금 단계에서 초석을 잘 다져놓아야 하기에 신경 써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선배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수습 기간이 끝났으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각 부서 선배님들에 먼저 사근사근하게 다가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과 커피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경기아트센터의 ○○○○○가 되고 싶다'의 빈칸을 채운다면? ^{※※※} 공기. 나는 경기아트센터의 '공기가 되고 싶다.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제가 되고 싶습니다.

※※ 나는 경기아트센터의 '열기가 되고 싶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경기아트센터에 오래오래 근무하면서 그날그날의 에피소드와 생각, 느낌을 기록한 다채로운 열기가 되고 싶습니다!





김학진 경영지원팀 주임, 노수정 안전시설팀 주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진} 안녕하세요. 경기아트센터 경영지원팀 김학진입니다. 1989년생 벨터입니다. MBTI는 국민 MC 유재석 씨와 같은 ISFP입니다.

^{노수정} 올해 서른세 살이 된 노수정입니다. 안전시설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기아트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김학진} 경영지원팀에서 센터 총무, 작·단원 복지, 성 평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수정} 보건 관리자로 법적 선임 신고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 보건 교육 관리,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작업 환경 관리(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밀폐 공간 관리, 보호구 관리 등), 건강관리(법정 건강 진단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의 수습 기간은 어땠나요? 개인적인 소회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등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김학진} 수습 기간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이지만, 직원 입장에서 '이 회사가 내가 계속 근무하고 싶은 회사인가'를 판단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회사를 다녔고,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회사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수정} <극락불리> 공연 때 티켓 배포 등 공연 지원 후 모니터링 관리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실감한 순간이고, 공연 내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타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수습 기간이 끝났습니다. 정직원으로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 텐데, 현재 심경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김학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총무, 복지 업무는 자잘한 업무가 많아 그다지 다가나지는 않지만, 제 노력으로 직원들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업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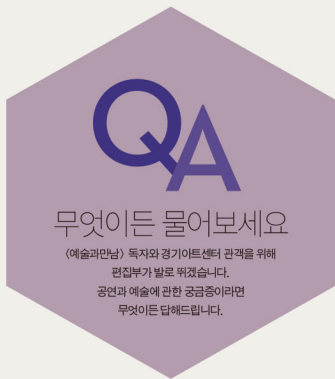
^{노수정} 최근에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이 강화되고 있어 수습일 때보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선배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학진} 코로나19 시국에 회사에 들어와 아직 제 얼굴을 모르는 분도 많고, 지도 직·단원의 얼굴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부끄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웃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이 오길, 경기아트센터 직·단원이 그날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차내시길 기원합니다.

^{노수정} 일하면서 사고가 우려되거나 안전보건상 위험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개선 방법을 찾아 바꿔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중에 다치지 말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었지만 세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나는 경기아트센터의 ○○○○○가 되고 싶다'의 빈칸을 채우다면? ^{김학진} 저는 경기아트센터의 '무지개'가 되고 싶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21년 7월 어느 날, 회사 위에 뜬 쌍무지개를 봤어요. 그때 동기들과 단복장에서 무지개 사진을 주고받으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가 뜨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수정} 팔레트. 다양한 색의 물감을 섞을 수 있는 팔레트처럼 경기아트센터 내·외부 인사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최근 센터에서 진행한 플로깅(plogging) 행사 '깍! 즐깁데이'가 인상적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아트센터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노
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_ 경기미술모노 연구원 PD

A 최근 직원들이 함께 센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깍! 즐깁데이'를
진행했는데, 이는 경기아트센터가 ESG 경영을 도입했음을 알
리는 신호탄으로 기관 내 기후·환경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했
습니다. ESG 경영은 지속 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
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경기아트
센터는 2021년 ESG 경영 전략 체계를 선포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ESG 경영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 경영
을 수행해왔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조명등 LED 교체,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임직원 차량 2부제 실시 등 탄소 저
감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고용 확대, 청년 인턴 및 연수 단
원 확대, 인건 침해 프로세스 수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구비, 비대면 우
수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는 ESG 경영 선포를 계기로 2022년에도 지속 가능 경영의 실천 범
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_ 경기기획팀 고요한 주임

* 플로깅(plogging)이란?

*아름답게 걷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깍다'와 '조깅'을 결합한 '깍깍아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Q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 〈고전적 음악, 저
녁-Home Again〉 공연을 통해 대니규, 고
상지, 윤현상, 조윤성 등 평소 좋아하는 연주자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연주자 섭외부
터 준비 과정 애드마스까지 무대 뒤 이야기까지 궁금
합니다! _ 브랜드전략팀 박성문 주임

A 〈고전적 음악, 저녁-Home Again〉 공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이브를 보내셨
다니 담당자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대부분 기획공
연 준비 과정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공연 일
정이 확정되면 담당자는 공연의 전반적 콘셉트를 정
합니다. 또 예매자들의 눈길을 끌 공연명과 티켓 가
격, 관람 등급 등을 정하고, 공연 캘리터와 티켓 판매
율 상승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연주자(출연자)를 중
심으로 섭외도 합니다. 아티스트 섭외가 완료되면 출
연진과 함께 공연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무대, 조명, 음향감독, 하우스 매니저 등 관계자들
이 함께 회의를 진행합니다. 무대, 조명, 음향 각 파
트의 감독들은 곡과 큐에 맞는 무대 전환, 조명 효과,
음향 등을 설계하고, 공연 담당자는 이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에 진행된 〈고전적 음악, 저녁-Home Again〉은 크
리스마스 홀 파티 분위기가 나는 아름다운 무대 연
출로 많은 관객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극장
내 무대감독을 비롯해 공연 관계자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무대였습니다.

물론 공연 담당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더욱 기분 좋게 공연을 즐기
실 수 있도록 로비와 티켓 부스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고전적 음악, 저녁-Home Again〉은 크리
스마스이브 저녁 공연이었던 만큼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을 장식할 풍선과 소품, 관람을 마친 관객을
위해 크리스마스 쿠키와 따뜻한 커피 등도 준비했습
니다.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다 보면 막상 담
당자는 객석에서 온전히 공연을 즐길 수 없지만, 출
품한 아티스트들을 무대로 모시고 예술이 주는 즐거
움을 관객과 공유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_ 공연사업팀 나지현 주임

경기아트센터, (미안마의 봄(내 번째 이야기)-평화를 기다리며) 공연
경기아트센터는 미안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미안마의 평화 회복을 원하고자 지난해 12월 2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미안마의 봄(내 번째



이야기)-평화를 기다리며)를 공연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번 공연에는 재한 미안마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미안마 소시민의 삶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안마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등을 공연을 통해 알렸다. 또 미안마 출신 인물루언서와 가수가 참여해 토크 콘서트와 노래를 선보였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재한 미안마 학생 모임 대표 진명^{Zin Myeong}은 "미안마의 민주화와 평화가 조속히 찾아오기 위해서는 미안마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미안마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연을 기획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있는 미안마 출신 인물 루언서 찬찬^{Chan Chan}과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Christian Burgos}가 함께 미안마 군부의 탄압과 민주화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특히 미안마 출신 소년 가수 원이^{Won Yiliwa}가 특유의 맑은 음색으로 부르는 노래는 객석의 미안마인

GGAC NEWS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폐막 공연 영상 공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참여한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폐막 공연 영상이 1월 21일(금)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한국에서는 21일(금) 오후 9시 30분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 계정과 네이버 TV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현지 시간 21일(금) 오후 3시 30분 러시아 공영방송 TVC^{TVCenter}와 러시아 컬처^{Russia Culture}, 러시아 시즌^{Russian Seasons}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문화로 잇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폐막 공연은 팬데믹으로 직접 교류하기 어려웠던 지난 2년을 돌아보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유대와 신뢰는 문화로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다. 공연에서는 러시아 명곡의 한국적 재해석부터 한국 문화 공연, 양국 청년들의 K-팝 커버 댄스 등 한·러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원일 예술감독은 '러시아의 장엄하고 씩씩한 선율과 우리 장단이 만나 곡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위대한 문화유산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양국이 문화 교류를 통해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제주4·3사건 소재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성황리에 개최

경기아트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을 성공적으로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제주시,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제작했다. 제주4·3사건을 소재로 쓴 천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원작으로, 1949년 제주 북촌리에서 벌어진 암인 학살 사건 당시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순이삼촌'의 삶을 다룬다. 오페라 <순이삼촌>은 2020년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초연부터 현재까지 예술 충감득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강혜경이 이번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올라 열연을 펼쳤다. 또 도립주예예술단을 비롯해 극단 가람, 제주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 국내 정상의 성악가와 현대 무용단을 포함해 약 210명의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에 감동을 더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오페라를 통해 제주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과 희생자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경기아트센터에 준공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 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 대부도,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 지평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류 부자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 규모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 42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약 17tCO₂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와의 협력으로 유류 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출자에 참여한 도민에게 전기 판매로 얻은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경쾌한 왈츠와 폴카로 맞는 일인년 새해,

'2022 경기팔하모닉 신년음악회'

지난 1월 2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2 경기팔하모닉 신년음악회'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정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과 관객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신년음악회 프로그램은 왈츠와 폴카 등 경쾌한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나라 경기팔하모닉 부지휘자는 음악회 무대에 올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집시 남작 서곡'과 '아닌 폴카', '천등과 번개 폴카', '봄의 소리 왈츠' 등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또 추운 겨울날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는 모습에 연상되는 에밀 발퇴펠의 '스케이티즈 왈츠', 페렌츠 레하르가 남긴 가장 유명한 왈츠 급과 은 왈츠' 등을 연주해 유쾌한 분위기로 공연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경기팔하모닉 수석 트럼페터 아나현이 요한 네포르크 홀멜의 '트럼펫 협주곡'을 연주하며 트럼펫의 매력을 한껏 뽐냈다. 경기팔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22년 한 해 동안 콘서트 오페라 <피기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마스터피스 시리즈', 계림 음악회 (리니지)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2

 FEBUR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새로운 시작을 14:00-19:0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13	14	15	16 월요일 14:00-19:0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17	18	19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새로운 시작을 14:00-19:00-18:3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20 2022년 2월 20일 토요일 14:00-19:00-18:3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21 2022년 2월 21일 토요일 14:00-19:00-18:3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22 2022년 2월 22일 토요일 14:00-19:00-18:3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23 2022년 2월 23일 토요일 14:00-19:00-18:30 장기이동센터 다목적	24	25	26
27	28					

※ 공연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031-280-3440) 2월 15일(031-280-3802-00)

2월 16일(031-290-3311, 3318) 2월 17일(031-289-6471-0) 2월 18일(031-280-3321)

CALENDAR

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광복절 여가문화길로 09:00 경기아트센터 다목적	4	5 광복절 여가문화길로 07:00 경기아트센터 다목적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광복절추석연휴 경기아트센터 다목적 07:00 경기아트센터 다목적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공연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공간 031-230-2246 경기노들극단 031-230-8020-04

경기노들극단 031-230-3311-3319 경기시립유악극스튜디오 031-289-6471 경기문화재단 031-230-5321



GGAC
레퍼토리시즌
2022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2022

